ULJU
LIBRARY

30 YEARS
STORY

울주도서관 30년 이야기



책 · 사람 · 문화와의
행복한 만남이 있는 도서관

USUL 울주도서관

ULJU
LIBRARY

30 YEARS
STORY

울주도서관
30년 이야기



책 · 사람 · 문화와의
행복한 만남이 있는 도서관

USUL 울주도서관

도서관학 5법칙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제1법칙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Books are for Use)

제2법칙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Books are for all)

제3법칙 모든 책은, 그 독자에게로
(Every books, its reader)

제4법칙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Save the time of the readers)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조직체이다.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

-랑가나단(S. R. Ranganathan) -

발간사



한 복 희
울주도서관장

인도 도서관학의 아버지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제5법칙」은 38년 가까이 도서관인으로 지내면서 내내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입니다.

울주도서관은 세 번이나 부임한 곳이고, 이제는 퇴임을 맞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근무지입니다. 도서관의 증축과 개축,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도서관 서비스가 비대면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변화의 물결을 함께 헤쳐온 곳이기도 합니다.

2021년 울주도서관은 이제 30년 역사를 가진 청년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나누는 이정표를 세우고자 문집을 발간합니다. 도서관의 지난 발자취를 한데 모아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내용으로 30주년 기념 문집을 꾸몄습니다. 도서관 로비에서 개최한 30주년 기념 사진전, 그동안 제공해 온 도서관의 다채로운 독서문화, 평생교육 서비스, 도서관에서 책을 이용하고 독서행사에 참여했던 이용자들의 소감과 추억을 문집에 담았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세대, 직업, 종교, 신념, 장애 및 다문화 세대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가장 민주적인 공공기관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때 공공도서관에 거는 기대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역할은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책,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인간 개인의 성장을 지원해 온 역할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울주도서관 역시 공공도서관의 소명을 이어 지역의 사람과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성장하는 유기체로서 사회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민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 됨으로써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30주년 기념문집 발간의 결실을 위해 참여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더없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 달 줄
울주도서관
운영위원장

울주도서관 30주년 기념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주 지역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마을문고 운동을 펼치신 간송 엄대섭 선생님의 출생지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선인의 업적을 계승하고자 힘써 온 울주도서관의 노고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자 문화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91년 개관 이래 울주도서관은 30년의 역사 속에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수준 높은 자료를 갖추어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으며, 독서문화 진흥 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과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30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모아 문집을 발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도서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뿍 담은 기록이 생겼습니다. 이 문집에 실린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은 앞으로 울주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고 설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전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서의 막중한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요구를 오롯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는 단순한 지식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동안 울주도서관의 발전에 힘을 쏟아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 시

우리들의 튼튼한 희망이 되라 - 울주도서관 삼십주년에 붙여 -



조 남 훈
시인

가지산 푸른 그늘이 날마다
부채살 햇살을 뿌려대는 언양벌에
서른해의 나이테를 질끈 동여맨
한 그루 거목으로 우뚝 선 울주도서관
산은 푸른 숲 키 세워 높이를 더하고
울주도서관은 한 권 한 권 책으로 몸집 불려왔다
옹이로 움켜쥐고 있다.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품이듯
지혜를 퍼내고 퍼갈수록 더욱 품이 넓어진
울주도서관이 들어선지 어언 서른해
어둠에서 먼 동이 트고 새날은 태어난다
희망에 배고픈 이들이 도서관에서
어두운 얼굴과 가슴 벗어놓도록
삼백 예순 닷새 불 꺼진 적 없었지
울주도서관이여
이 땅의 정기 올곧은 숨결로 영원하라
나 울주도서관에서
청람 빛 눈빛으로 세월을 빗질하는 젊은이들을 보았노라
지혜는 썩거나 녹슨 적 없으니 맑은 바람
몰고가는 청정한 숲으로 울창하라
글 읽는 소리 끊이지 않고
푸른 비상이 숨 쉬는
울주도서관이여
빛 고운 남도의 중심이 되라
큰 둥지의 비상을 위하여
더 높이 우뚝 서거라
저 무한 창공의 넓이와 깊이 속
우리들의 튼튼한 희망으로
나이테를 키우고
홀로 푸르러라

CONTENTS

❍ 발간사 ····· 3
❍ 축사 ····· 4
❍ 축시 ····· 5
❍ 도서관 현황 ····· 8
❍ 도서관 발자취 사진전 ····· 12
❍ 8행시 공모 ····· 17
❍ 30번째 대출자를 찾아라 ····· 20
❍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대 마당 ····· 21
    - 문영(시인)/울주도서관과 나
    - 배혜숙(수필가)/책의 신전
    - 임석(시인)/울주도서관 3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 드리면서
    - 정용호(도서관 지혜학교 지도강사)/우리에게는 '글나래'가 있으니 누구보다 자유롭다
    - 조남훈(시인)/가시나무
  ❍ 이용자 마당 ····· 26
    - 강별(반천초등학교 5학년)/도서선
    - 강별(반천초등학교 5학년)/숨바꼭질
    - 강찬(반천초등학교 3학년)/보물창고
    - 노다현(영화초등학교 2학년)/우리의 도서관
    - 박수이(언양초등학교 3학년)/책이 많은 도서관 울주도서관
    - 박재은(언양초등학교 5학년)/울주도서관과 나
    - 안다영(중남초등학교 6학년)/다영이에게 울주도서관이란?
    - 이채현(삼남초등학교 6학년)/울주도서관과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
    - 김다연(언양중학교 2학년)/울주도서관과 나
    - 강월리(서예반 수강생)/讚歎
    - 강정일/우리 하브루타 할래요?
    - 김인옥/동반자
    - 김일용/울주도서관과 나
    - 김종연/울주도서관과 나
    - 문호영/꽃밭은 벌·나비의 서고
    - 박가화/자운영이 피는 울주도서관
    - 박승혜/추억과 세상
    - 박정희/도서관과 함께, 지금도 성장 중

CONTENTS

- 박진수/울주도서관과 나
- 박혜령/울주도서관과 나
- 신용순/울주도서관과 나
- 엄재우/보물창고
- 이미정/울주도서관과 나
- 이수민/30대의 나 그리고 울주도서관
- 이영수/울주도서관과 나
- 이준호/울주도서관에서의 추억
- 정건애/나의 마음의 안식처 울주도서관
- 정윤정/울주도서관과 나
- 정정화/등나무에게
- 조종순(가까운도서관 사서)/책
- 최정란/고마운 나의 언니
- 한성규/울주도서관까지 가는 길
- 허숙경/울주도서관 나들이

❍ **강사 마당** ····· 63

- 강영숙(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 강사)/나침반을 마련하는 일
- 김경숙(책사랑중학생독서회 강사)/책을 견디는 시간
- 김영애(초등학력인정과정 문해교육 글나래학교 강사)/울주도서관과 맺은 인연
- 김영진(서예동아리 지도강사)/울주도서관과 나
- 김희진(하브루타코칭 자격과정 강사)/숲속엔 옹달샘, 우리 옆엔 울주도서관
- 남중모(문인화 동아리 지도강사)/도서관 수업을 하면서
- 이영주(인문학이 있는 미술관 강사)/행복을 선물하는 마법의 도서관
- 장경숙(진로독서·인문학 강사)/책을 살리는 곳, 도서관

❍ **직원 마당** ····· 73

- 박화연(행정주무관)/울주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며
- 배근아(자료운영팀장)/울주도서관과 인생 2막
- 이민미(자료지원팀 사서)/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나
- 이정혁(시설주무관)/새야 즐거이 노래하라
- 한복희(관장)/내가 사랑한 울주도서관

❍ **발전 우수 사례** ····· 79

❍ **편집후기** ····· 87

❍ **도서관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 88

도서관 현황

교육기본방향

교 육 비 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운 영 목 표

책·사람·문화와의 행복한 만남이 있는 도서관

운 영 방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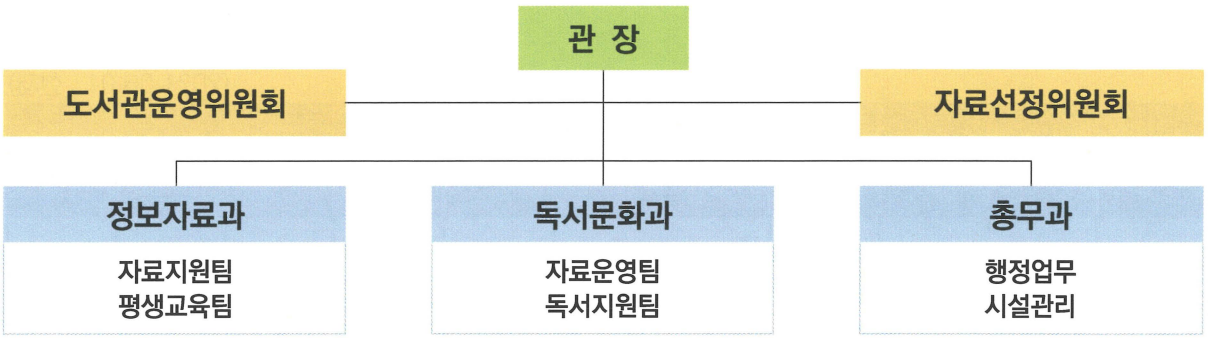
-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미래를 여는 독서문화 서비스 전개
-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실현
- 배움과 나눔의 독서활동 지원

연 혁

- 1990.12.27. 울주도서관 설치조례 공포(울주군 조례 제1199호)
- 1991.10.11. 도서관 개관
- 2000.01.31. 평생학습관 지정(울산광역시교육감)
- 2010.02.23. 도서관 증축건물 개관
- 2010.07.11. 본관 리모델링 및 도서관 전체개관
- 2015.03.01.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기관 지정(울산광역시교육감)
- 2017.07.01.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표도서관 지정
- 2017.07.01. 기관장 직급 조정(지방부이사관)

기구 및 정원·시설

기 구



정·현원

구분	일반직						교육공무직	특수운영직	합계
	3급	5급	6급	7급	8·9급	소계			
정원	1	3	5	6	9	24	8	4	36
현원	1	3	8	6	3	21	8	4	33
과부족	0	0	3	0	△6	△3	0	0	△3

시설규모

대지	건물면적	주요시설
9,865㎡	본관 2,104.26㎡	1층: 관장실, 총무과, 어린이자료실, 영·유아자료실, 다목적실, 당직실 2층: 문학자료실(정기간행물실, 장애인실), 자유열람실1, 자유열람실2 3층: 정보자료과,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별관 2,271㎡	지하: 보존서고, 다목적실, 도란도란북카페 1층: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당직실 2층: 울산광역시교육청 힐링Wee센터, 글나래교실 3층: 독서문화과, 시청각실, 언양대회의실
	어린이도서 보존서고 66.50㎡	1층: 어린이도서보존서고

자료 및 이용현황

자료 및 이용현황

• 도서

(2021.06.01. 현재)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합계
8,288 (3.3%)	12,937 (5.2%)	5,997 (2.4%)	41,872 (16.7%)	17,424 (7.0%)	19,363 (7.7%)	11,082 (4.4%)	7,193 (2.9%)	102,680 (41.1%)	23,189 (9.3%)	250,025

• 비도서

(2021.06.01. 현재)

DVD	Audio CD	CD-ROM	Video CD	E-Book	Web contents	합계
8,737	884	973	54	183	973	11,804
(DV, OD)	(AC, OC)	(CD)	(VC)	(EB, EJ)	(WB)	

• 이용현황

2020.07.01.~2021.05.31.(권, 점)

구분	문학자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합계	비고
대출	10,734	12,230	19,969	252	1,552	44,737	독서회원 (48,496)
열람	33,936	32,049	52,617	464	20,730	139,796	
합계	44,670	44,279	72,586	716	22,282	184,533	

주요사업 계획

2021년 주요사업 계획

구분	주요 사업명	대상	시기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다양한 주제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	학생 및 지역주민	1~12월
	이용자 맞춤형 자료 확충	학생 및 지역주민	1~12월
	학교 및 작은도서관 도서 기증	학생 및 지역주민	9월
	전산시스템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	학생 및 지역주민	1~12월
미래를 여는 독서문화 서비스 전개	독서문화 프로그램	학생 및 지역주민	1~12월
	북스타트,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미취학	4~12월
	도서관주간, 세계 책의 날, 독서의 달 행사	학생 및 지역주민	4, 9월
	방학 독서교실 운영	초등학생	1, 8월
	대상별 독서회 운영	초·중·성인	1~12월
	책 낭독회 운영	성인	1~12월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1~12월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지원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초등학생 및 학부모, 일반	1~12월
	자유학년제 청소년인문독서 프로그램	초·중학생	4~11월
	청소년 진로독서 프로그램	초·중학생	4~12월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성인 비문해자	4~12월
	책읽기로 성장하는 독서코칭	초등학생 및 학부모	1~11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초·중학생	4~11월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적장애인 및 성인비문해자	4~8월
	울산평생학습박람회 부스 운영	지역주민	하반기 예정
	평생학습 동아리	지역주민	1~12월
배움과 나눔의 독서활동 지원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	초등학생	2~11월
	책꾸러미 택배서비스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기관	2~11월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연계 독서활동 지원	미취학, 초등학생	4~11월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 도서관	4~11월
	지역아동센터 독서활동 지원	초등학생	4~11월
[특색사업]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연계 독서활동 지원	미취학, 초등학생	4~11월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 도서관	4~11월
	지역아동센터 독서활동 지원	초등학생	4~11월

울주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사진전

도서관의 발자취를 담다

(1991~2021)

◈ 기간 : 2021. 5. 4.(화) ~ 5. 30.(일)

◈ 장소 : 울주도서관 갤러리(3층)

울주도서관이 걸어온 길

1990's

- 1990. 12. 27. 울주도서관 설치조례 공포 (울주군 조례 제1199호)
- 1991. 3. 27. 도서관 건물 준공
- 1991. 10. 11. 도서관 개관

2000's

- 2000. 1. 31. 평생학습관 지정 (울산광역시교육감)
- 2000. 10. 4. 이동도서관 운영
- 2003. 6. 24. 디지털자료실 개설
- 2009. 12. 30. 도서관 증축건물 준공

2010's

- 2010. 2. 23. 도서관 증축건물 개관 (문학자료실, 영유아자료실 개설)
- 2010. 6. 25.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완공
- 2010. 7. 11. 도서관 전체 개관
- 2015. 3. 1.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교육기관 지정
- 2016. 1. 1. 울산학교도서관지원센터 지정 (울산광역시교육청)
- 2017. 7. 1.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표도서관 지정

2020's

- 2020. 1. 1. 울산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이관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 2020. 6. 1. 스마트도서관 운영

도서관 변천 모습

1990년 12월 27일 도서관 건립 설치조례가 울주군 조례 제1199호로 통과하여 공포되면서 당시 경상남도 울주교육청 부지 중 일부인 울주군 언양면 어음리 238-2번지 1,900㎡(575평)을 할애받아 도서관 신축에 착공하였다.
울주도서관은 1991년 3월 27일 열람석 300석을 갖춘 지상 3층 도서관 건물이 준공되어 조경과 무대시설 등을 갖추어 1991년 10월 11일 개관하였다.



▶1991. 10. 11. 개관



▶도서관 본관 증축 (공사중)



▶도서관 본관 리모델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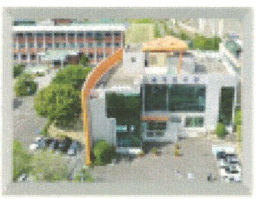
▶2010. 2. 23. 증축 개관식



▶2010. 7. 11. 도서관 전체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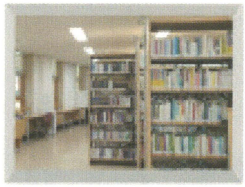
▶증축 및 리모델링 후 도서관 모습



▶지금 현재 도서관 모습

자료실 모습

▶ 문학자료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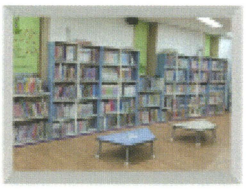
▶ 어린이자료실 ◀





▶ 영유아자료실 ◀





▶ 종합자료실 ◀





디지털 자료실



▶구 디지털 자료실



▶2003년 디지털 자료실 개실



▶현 디지털 자료실

이동도서관

2016. 1. 1. 작은도서관 확대로 이동도서관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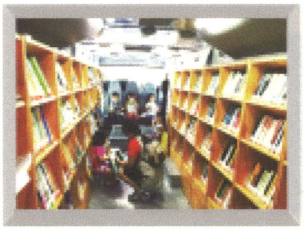
▶2000년 이동도서관 개관



▶2008년 이동도서관 모습



▶2014년 이동도서관 모습



▶2014년 이동도서관에서 책 읽는 아이들

독서문화행사 대상별 독서회

▶ 작은나라 어린이 독서회 ◀



▶ 책사랑 중학생 독서회 ◀



▶ 자운영 성인 독서회 ◀



독서문화행사 동아리

▶ 한국화(청묵회) ◀



▶ 영어회화 ◀



▶ 일본어회화 ◀



▶ 문인화 ◀



▶ 서예 ◀



▶ 도란도란 낭독회 ◀



독서문화행사 북스타트, 사서와 함께 책읽기, 명사 초청 책읽기

북스타트 공연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온라인공연



찾아가는 북스타트

▶두들방설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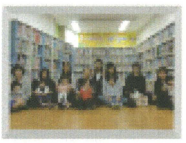
▶어린이집



▶KTX울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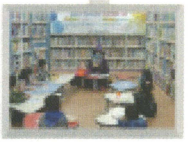
북스타트후속프로그램



▶하하호호 동화놀이터



▶음악놀이리틀모차르트뮤하이에



▶영어동화와 함께하는 story talk talk

사서와 함께 책읽기







명사 초청 책읽기







평생교육행사



▶ 2014년 길위의 인문학



2017년 길위의 인문학 ◀



▶ 2018년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2020년 오조롯 동화 코딩 놀이터 ◀



▶ 2018년 글나래학교 현장체험학습



2020년 글나래학교 수업 ◀



▶ 2020년 진로독서 프로그램



2020년 도서관 지혜학교 시집 출판기념회 ◀

학교 독서활동 지원



▶ 2016년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



▶ 2016년 울산12학목 인성 독서프로그램



▶ 2017년 학생과 저자와의 만남



2017년 낭독하고 토론한 데이~◀



2018년 울산학생독후감 ◀
공모시상 및 초청강연



2020년 우리마을에서 북스테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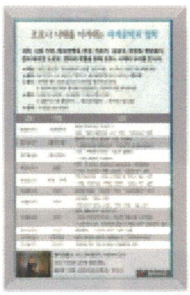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도서관 모습



안심맞춤 대출서비스 ◀



▶ 세계 책의 날 행사





▶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세계문학과 철학 온라인특강



▶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세계문학과 철학도서 전시회



스마트 도서관 ◀

8행시 공모

대상	이름	8행시〈울주도서관삼십년〉
일반	김민정	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09 주 - 주소가 몇번이 바뀌어도 도 - 도서관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서 - 서책과 사람의 관 -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삼 - 삼십년 해오고 있다 십 - 십년의 세월을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정을 겪은 오딧세우스를 보는 마음으로 모든 이가 책으로의 귀환에 년 -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울주도서관이 앞으로도 쭉 되길 바란다
	송두환	울 - 울주도서관을 주 - 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도 - 도서관이 30년을 맞이하는 순간을 함께한다는 것이 서 - 서로에게 영광스럽게 여겨진다 관 - 관심과 사랑을 앞으로도 쭉~ 가질것이며 삼 - 십년이 사 십 - 십년, 오십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매 년 - 년 울주도서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태화	울 - 울주는 울울창창 주 - 주변 경관 빼어난데 도 - 도처에 솟아있는 명산팔영 위화지상 서 - 서기가 솟아나는 태화강이 흘러흘러 십리대숲 청정지대 관 - 관동팔경이 또 있구나 삼 - 삼천리는 금수강산인데 십 - 십년이 세번지나 청년이 된 울주도서관 년 - 년년이 맥을 이어 천년 너머 꽃피우리
	윤경희	울 - 울 가족이 낯선 언양에 와서 느끼던 적적함을 주 - 주말마다 앎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던 도서관 도 - 도시락 싸서 큰 나무 아래에 펼쳐놓고 책을 읽는 동안 서 - 서서히 언양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바쁜 일상을 살게 되었지만 관 - 관조의 시간이 필요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곳 삼 - 삼삼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부모품에 있던 꼬맹이가 십 - 십대가 되고 풋풋한 신혼부부가 중년이 되어버린 시간까지 년 - 연을 맺었으니 앞으로 인생에도 함께 하자!

대상	이름	8행시〈울주도서관삼십년〉
중·고등학생	김가빈	울 - 울산시 울주군에는 주 - 주민들이 좋아하는 도 - 도서관이 있어요 서 - 서비스도 좋고 책도 5권 빌려주고 많은 책이 있어요 관 - 관심집중! 삼 - 삼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십 - 십대부터~ 모든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년 - 연인, 친구, 부모님과 함께 울주도서관으로 오세요
	박의진	울 - 울창한 지식의 숲을 주 -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도 - 도서관 서 - 서책의 향기 속에서 관 -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삼 - 삼십년, 그 시간을 넘어 십 - 십장생 처럼. 오랜시간 함께 할 년 - 연모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울주도서관. 파이팅!
	최선영	울 - 울주도서관에는 읽을 책들이 많아 주 - 주 2-3회 정도 오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도 - 도서들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서 - 서로서로 자기를 읽어 달라고 관 - 관심을 가지게 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삼 - 삼십분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십 - 십년 넘게 이러한 고민들을 하다보니 매년 년 - 년 매일 매순간 마다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매력 넘치는 책들을 읽게 해 주는 모든 도서관에게 감사합니다.

대상	이름	8행시〈울주도서관삼십년〉
초등학생	김하율	울 - 울산의 도서관 중에서 내가 주 - 주로 다니는 도 - 도서관은 울주도서관이다 서 - 서점에서 책을 살 필요없이 책을 볼 수 있어 관 - 관심이 쏠린다. 산 삼 - 삼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만 책은 두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십 - 십년 백년을 이 도서관이 보냈으면 좋겠다. 내 년 - 년에도 오늘처럼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으면 한다.
	오서준	울 - 울렁울렁 주 - 주사를 맞는 것처럼 도 - 도서관이 싫었는데 서 - 서서 두리번거리다가 관 - 관심을 끈 제목을 발견하고 삼 - 삼분만 보자고 펼쳤는데 십 - 십년동안 본 년 -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잖아
	천부경	울 - 울주군민들의 마음의 휴식공간 주 - 주인공이 되어 책속에 빠져 보아요! 도 - 도저히 멈출수 없는 마법같은 독서시간 서 - 서둘러요! 관 - 관심을 가져서 삼 - 삼삼오오 모여 정답게 책을 읽어요 십 - 십분만이라도 시간내어 책을 읽어요 년 - 년간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울주도서관으로 오세요!

30번째 대출자를 찾아라





[초대 마당]

울주도서관과 나

문 영(시인)

도서관은 책의 보고다. 책의 보고란 말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그 속에 담겨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은 책을 통해서 삶을 실현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가 '나를 키운 건 학교 선생님도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 도서관이었다'라고 했을 때 도서관의 역할과 책의 중요성은 크게 드러난다.

30년 전 울주도서관이 언양에 세워졌을 때 언양과 울주민들은 비로소 역사와 교육, 문명과 문화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울주도서관은 울주를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은 이들은 자신의 꿈을 찾아갔다. 도서관이 등대라면 그 속에서 책 읽는 사람들도 스스로 등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이룬 기적을 낳았다. 각 분야에서 빛나는 이름과 업적을 이룬 사람이 보여주는 능력은 스스로 등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언양을 오고 가면서 울주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도 하고 자료를 검색하면서 내가 본 사람들. 특히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가 발전하는 등대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래서 나온 시가 내 시집 『바다, 모른다고 한다』
말미에 실린 졸시 「등대」란 시다.

밤바다 등대가
불을 켜고 책을 읽는다

하늘엔 별빛
가슴엔 불빛

불의 눈빛이 닿는 자리마다
바다의 책장을 넘기는 바람이 분다

눈의 불빛이 지나는 걸음마다
우주가 살아가는 것을 숨 쉰다

책 읽는 사람이 등대다

그렇다. 책 읽는 사람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와 인간의 삶을 이끈다. 30주년 기념 울주도서관에게 축하를, 책 읽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약력 : 문 영

- 1988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바다, 모른다고 한다』외 3권. 비평집 『변방의 수사학』 산문집 『발로 읽는 열하일기』 등 발간. 울산문학상, 창릉문학상 수상. 현 오영수문학관 문예창작지도 교수.

[초대 마당]

책의 신전

배혜숙(수필가)

스웨덴을 여행하고 온 친구가 스마트 폰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불리는 스톡홀름 공공도서관을 보고 왔다며 한껏 들떠 자랑을 합니다. 1928년에 지어진 북유럽 신고전주의 건축을 대표하는 오렌지 빛 벽돌의 원형 건물로 스웨덴 여행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국민독서량 세계 1위인 스웨덴 사람들의 독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책의 신전이라 불리는 곳이지요. 이집트의 신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함께 내 도서관 투어 목록에 올라 있어 꼭 한번 가 보리라 벼르고 있습니다.

내게도 책의 신전은 있습니다. 십 대인 내게 읽고 쓰는 일에 자신감을 키워준 학교 도서관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나를 반겨준 것은 이층 건물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는 것도 잊고 도서관에 박혀 있곤 했지요. 매일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도서관을 나서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할 때 까지 6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제일 처음 접한 책은 '마르크 샤갈의 화첩'이었답니다.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총 천연색의 두껍고 큰 판형의 화첩은 귀한 책이어서 사서 선생님이 조심히 다루라고 경고도 했지요. 나는 그날 이후 마르크 샤갈에 빠져들어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화가로 그를 꼽습니다. 그곳에서 빨강머리 앤을 사랑하게 되었고 장발장을 알게 되면서 파리의 뒷골목을 여행하는 꿈을 꾸었지요. 다양한 사람들을 책을 통해 만났으며 고전의 바다에 빠져 색다른 경험도 했습니다. 아마 스톡홀름 공공도서관에 발을 들여 놓는다 해도 14살에 만난 도서관의 감동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숲속에 둘러 쌓인 이층 건물의 학교 도서관은 내 생애 처음 만난 책의 신전이었으니까요.

예전에는 도서관 가까운 곳을 찾아 이사를 다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 도서관이 많아졌고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도서관이 있어 언제나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멀리, 아주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신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 도서관이 우리에겐 책의 신전이 아닐까요.

내게 또 다른 책의 신전이 있다면 울주도서관입니다. 8년을 자운영 독서회와 함께 했으니까요. 오랜 시간 보라색 구름 속을 거닐 듯 행복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는 그 꽃에 반해 오월이면 자운영 꽃밭을 찾아다녔지요. 얼마 전에 우포늪 자운영 군락지도 다녀왔습니다. 자운영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녹비도 되고 벌에게 꿀도 내어 줍니다. 도서관을 찾는 모두에게 정신의 풍요와 미래를 열어 주듯이 말입니다.

도서관에서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를 대출했습니다. 너무 두꺼운 책이라 꼭 안고 왔지요. 책을 읽어 가다 밑줄을 긋고 싶은 곳이 있어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도시들을 볼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는 잡목림과 빽빽한 나무들, 가시덤불, 바위굴 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의 진정한 고향집은 숲이었다.'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나의 진정한 고향집은 숲속의 도서관이었다고 말입니다.

약력: 배해숙

- 1977년 ≪월간문학≫신인상으로 등단/수필집 『밥』외 4권/'북촌시사' '개밥바라기' 동인으로 활동

[초대 마당]

울주도서관 3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 드리면서

임 석(시인)

제가 2010년도에 퇴직을 하고 그 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한 도서관 파견 상주작가 모집에 선발되면서 그때로부터 울주도서관 한복희 관장님과 인연이 되어 그 연을 맺어온 지도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당시 중남 · 연화 · 두동초등학교 등에 파견되어 어린이 동시조 교실을 열고 꿈나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조 백일장에서 장원과 차상 등 많은 어린이들이 수상을 하였고, 이 어린 꿈들이 착하게 커서 벌써 어른이 되어 올바르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가지산 문학동호회 수강생 중에는 소설가와 시조 시인으로 등단하여 왕성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판화수업에서는 동화책 '도톨꾀기작전'을 목판화로 찍어 전시하였으며, 목판화 초대전도 열고 임석화가 사인회를 가진 것은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셨던 학부모님들로부터 여전히 고맙다는 인사를 건내 받을 때마다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늦었지만 지면을 통해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주도서관 3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울주도서관은 과거 울주의 문학 산실을 만든 포은 정몽주 선생이 유배를 온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포은 선생에 대한 시조 한편을 지어 올립니다.

늪지에 핀 꽃
-포은선생의 유배지

한시름 일상 벗고 언양 찾은 서울손님
*요도(寥島)가 어딘지 몰라 길을 찾아 헤맨다
등 매단 자목련 뚝뚝 소리 없이 지던 봄

살풍경 풀어놓은 찌그러진 비알자락
작괘천 물소리가 푸른 새 빛 앉혀가고
포은의 눈물인 듯한 샘물 퐁퐁 솟구친다

반구대 가는 길섶 잠시 걸음 멈춰 선다
집청마루 걸 터 앉아 한 입술 적신 단소
산마루 넘어 선 달이 무슨 말을 건네는 듯

원시림 돌아 나온 구곡의 큰 나무람
몰인정 도시 향해 좔 좔 좔 달려간다
한 시대 목마른 늪지 꽃을 피워 안기는

*요도(寥島): 포은 정몽주선생의 유배지

약력 : 임 석

- 200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당선으로 문단에 등단. 시집. 『들꽃의 노래』외 3권. 2017년 시조문학 올해의 작품상 『반구대』, 울산시조문학상 성파시조문학상 등 현 울산문화재단 전문예술강사.

[초대 마당]

우리에게는 '글나래'가 있으니 누구보다 자유롭다

-울주도서관 글나래교실에 관한 斷想-

정용호(도서관 지혜학교 지도강사)

'글나래 교실' 창밖으로 고속열차가 내달린다. 오가는 열차에 몸을 실은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역 발전을 위해 건설한 고속열차가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열차 소리가 반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곳을 벗어나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날갯짓을 할 수 없는 좁은 새장 속에 갇히려는 안타까운 몸부림 같기만 하다.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지방도시인 울산, 그 중에서도 이곳 울주군에서 '책을 읽는 일'은 정적으로만 보일 수 있다. 구영리에서 자라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울주군이 언제쯤 구로 승격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그 시절 사람들도 도시화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다. 책 읽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일해야만 하는 도시화가 무엇이 그리 좋았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가만히 앉아 책을 응시하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넘치리라 생각하기는 힘들겠다. 보통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활기를 찾으니 말이다. 어쩌다 책장을 넘기거나 자세를 고쳐 잡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다면, 책상에 앉아 깜빡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활력이 없다고, 현실에 맞설 용기나 힘이 없어 책 속으로 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책을 읽는 일'은 나만의 방식으로 '책을 일구는 행위'이다. 활자 이면에 숨은 의미를 끄집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의미도 작가가 의도한 대로라기보다는 나의 관점에서 조정된 의미에 가까운 것이다. 책에 순응하는 독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책은 독자의 삶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듬지 않은 재료로는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

'울주도서관 글나래교실'은 '책 읽기'를 넘어 '책 일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텃밭에서 수확물을 뽑아 올리는 곳이다. '책 일구기'라는 말을 사용하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아무리 강의를 해도 그에 공감하는 경우를 보기 힘들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나는 '책 일구기'를 향한 공감과 실천을 마주했다.

작년 가을 처음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대기적으로 그들은 나를 앞섰기에 선생이었음은 물론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나를 앞서 있었기에 선생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생소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자신의 독서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반론하는 과정을 즐겼다. 그들 앞에서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동료였을 뿐이다.

올해도 '울주도서관 글나래교실'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여전히 창밖으로는 이곳을 벗어나려는 고속전철의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는 '글나래교실'에 앉아 자신의 날개를 정비한다. 텅 빈 하늘의 충만함을 잊은 채, 그저 지상에 내려앉아 바닥만을 쪼아대는 새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우리는 이미 날고 있다. 가다듬은 '글나래'를 펄럭이면서 유유히 날고 있다. 속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느리지만 깊이 있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면서.

[초대 마당]

가시나무

조남훈(시인)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울주도서관 광장
수령 백년은 족히 넘을
한아름의 나이테 질끈 동여매고
탐닉의 경전을 쓰는
가시나무가 있다
우둠지에 펴 놓은 하늘
성스러운 사원이 한 채다
수 천 수 만 잎새들
팔만대장경의 말씀이듯 반짝인다
가시나무새 경하듯 노래하고
풀벌레 베이스를 넣는다
음풍농월 질펀히 깔아놓은 광장
무능을 방생하며 가시나무 서 있다

울주도서관 광장은
삼 백 예순 닷새가 축일이다
가시나무 푸른 그늘 내리고 부채질한다
가시나무에 걸터앉은 낮달
옹이를 쓰다듬으며
경하듯 잎새 피운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등

도 서 선

-더 많은 지식을 찾아 지식성으로!-

강 별(반천초등학교 5학년)

이~하
보물을 찾으러
떠나자!

지도를 어서 구해!
영차 영차
지식박스로
찾아보자

아. 야. 어. 여.
어! 찾았다.
드디어 나에게
필요한 지도를 찾았어!

닻을 올려라~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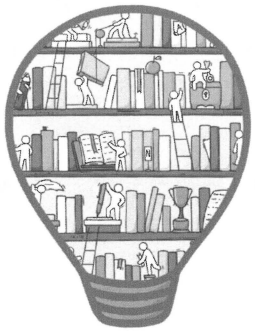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등

숨바꼭질

강 별(반천초등학교 5학년)

계단을 오르자
한 칸 두 칸 세 칸
이제 찾는다!
탁탁
네모박스로 단서를 찾아
숨은 지식책을 잡는다.
휴~
다 잡았다.
이제
계단을 내려간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등

보물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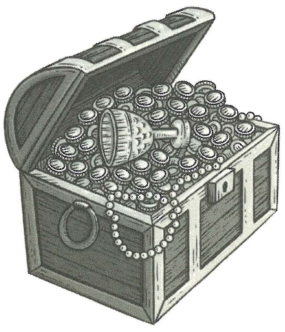
강 찬(반천초등학교 3학년)

어떤 보물을 찾을까?
엄마 이것 봐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나만 쳐다봤다.
엄마는 검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댄다.

나도 아는데 ...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에
나의 입술은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야호를 외쳤다.

다음에도 좋은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등

우리의 도서관

노다현(영화초등학교 2학년)

우리의 도서관 울주도서관
재미있고 멋진 책들이 너무 많아
고르기 힘들지만
하나하나 읽어보니
지식이 넘쳐나는
우리의 도서관 울주도서관
만화책 그림책 소설책
책이 너무 좋아
우리의 도서관 울주도서관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등

책이 많은 도서관 울주도서관

박수이(언양초등학교 3학년)

울주도서관에 가면 책이 참 많다.
만화책, 요리책, 운동책, 역사책
없는 책이 없다. 우리 집
만큼 빌려가고 싶지만
그 만큼은 아마 못 빌릴 거야.
도서관 도서관 책 많은
울주도서관...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면 책들이
나를 빌려줘! 하며
반갑게 인사한다.
책들아 안녕!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등

울주도서관과 나

박재은(언양초등학교 5학년)

평소에 울주도서관을 좋아했던 학생입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이 인상 깊었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셨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동생과 엄마와
함께 가서 책들을 많이 빌려오곤 했습니다.
책들도 많아서 여러 가지의 다양하고 새로운 책도 많이 읽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가고 엄마 혼자 가셔서 빌려오십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도서관에서 편안히 책을 읽고 싶어요.
새로 들어온 책들도 마음껏 둘러보고 싶어요.
울주도서관이 벌써 30주년이 되었다는데 앞으로 100주년까지 쭉 좋은 도서관
울주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게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등

다영이에게 울주도서관이란?

안다영(중남초등학교 6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중남초등학교 6학년 안다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울주도서관의 장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울주도서관의 장점은 무수히 많지만 제가 가장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장점 몇 가지만 소개 해볼게요.

첫째,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전 평소에 울주도서관 대출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울주도서관에 가면 제가 찾는 모든 책들을 항상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이 점을 정말 좋아해요.

둘째,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친절하세요. 제 경험담인데요. 어느 날 제가 책을 찾고 있는데 제가 찾는 책이 안 보이는 거에요. 그런데 그 때 사서 선생님이 오셔서 "뭐 찾니?"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그 순간 사서 선생님이 저한텐 정말 구세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책 번호를 사서 선생님께 내밀었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 책은 보존실에 있는거야! 선생님이 들고 올게!" 라고 하셨어요. 그 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네!"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던 점이 아직도 아쉬워요. 다시 뵈면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그 사서 선생님을 마주치기가 힘들더라구요. 이 글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한 울주도서관의 장점들인데요. 지금 2가지밖에 못 적었지만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답니다!

이번엔 울주도서관의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저는 2년째 이 독서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ZOOM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겹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얼른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나라독서회의 선생님을 소개 해보려고 해요. 책을 안 읽어오는 친구들을 위해 항상 책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 해주시고 누가 봐도 대충한 것 같은 글쓰기나 활동에도 "어우~ 우리 OO이 너무 잘했네. 수고했어~!" 이런 식으로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매 수업마다 느껴요.

또, 작은나라독서회에서 읽으라고 추천해주시는 책도 정말 저희 수준에 알맞은 책인 것 같아서 어려움 없이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 중 대다수가 작은나라독서회에서 읽었던 책들이에요. 저는 제가 작은나라독서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6학년이라 올 해 작은나라독서회가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서도 울주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 때까지 울주도서관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겠죠? 만약 울주도서관이 없어진다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항상 울주도서관에 가서 대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었는데 울주도서관이 없어지면 이렇게 책을 가까이하기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아! 맞다! 가장 중요한 말을 안 했네요. 울주도서관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요!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초등

울주도서관과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

이채현(삼남초등학교 6학년)

나에게 '울주도서관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난 단순히 '책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나에게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는 싫지만 부모님이 시키셔서 억지로라도 들어야 하는 단순히 '책 수업'일 뿐 이었다. 얼마 전 까지는. 나의 이런 생각은 최근 들어 바뀌게 되었다. 물론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는 책으로 하는 수업이긴 하다. 하지만 나에게 단순히 책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나의 안 좋은 생각을 바꾸어 주었고, 새로운 꿈을 주었다. 또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작년 독서회 때 '우주로 가는 계단' 의 뒷이야기 쓰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난 내 글에 정말 자신이 없었지만 쓰다 보니 꽤 괜찮은 글이 되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내가 쓴 글을 칭찬해주셔서 정말 기뻤었다. 기뻤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내가 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식 정보 책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읽기 싫어한다. 그래서 난 이런 종류의 책을 읽지 않고 항상 소설책 같은 책들만 읽었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독서회 때, '차별은 세상을 병들게 해요'라는 책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 책은 내가 싫어하는 지식정보 책인지라 읽기 싫어서 독서회 직전까지 미뤄뒀다가 읽었었다. 그런데 이 책은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쓰여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그 후론 지식정보 책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별로 꺼려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꿈이 없었다. 그에 비해 내 주위 친구들은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선생님, 의사 등 각자 장래희망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었다. 나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장래희망으로 정하고 싶고 그 분야를 잘 노력해 보고 싶었지만 내 장래희망을 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독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써보니 그 일이 꽤 재미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글 쓰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확실히 장래희망을 글 쓰는 직업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글 쓰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내 의견이 반영된 글을 써서 책으로 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늘어놓고 나니 이 모든 게 다 나와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덕분인 것 같다.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선생님께서 권유하신 것이니 선생님 덕분에 이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선생님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뵐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져서 선생님과 직접 만나 독서회에서 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선생님께 감사하고,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준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에 감사하다. 또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가 있을 수 있게 해 준 울주도서관에도.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 중등

울주도서관과 나

김다연(언양중학교 2학년)

전 평소에 울주도서관을 잘 몰랐었어요. 울주도서관에 대한 평소 저의 생각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제가 '책사랑중학생독서회'를 하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어졌어요. 전 '책은 제가 몰랐던 지식들과 문제들에 답이 되어준다?' 라는, 엄청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회를 하면서 '책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 가는 것도 재밌었졌어요. 그리고 제가 책사랑독서회를 하면서 좋아하는 책을 찾게 되었어요. '아이들만의 도시' 라는 책을 정말 즐겁게 읽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에 잘 못가고 있는데, 작년엔 정말 친구들이랑 많은 의견을 내면서 재밌게 토론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토론은 제가 생각했던 걸 말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책사랑독서회를 약 2년째 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책도 열심히 읽고 했는데 2학년이 되니까, 시험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게 아쉬워요. 지금 2학년 시점으로 1학년을 쳐다 보면 저땐 참 시간이 많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요. 독서회를 하면서 창의력과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다음에도 또 신청을 할 것 같네요.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讚歎

강월리(서예반 수강생)

흰 빛 정갈한
包容의 바탕에
나르는 듯
흐르는 듯~
춤추는 鶴의 날개 짓인 듯~
사뿐히 고운
신비로운
僧舞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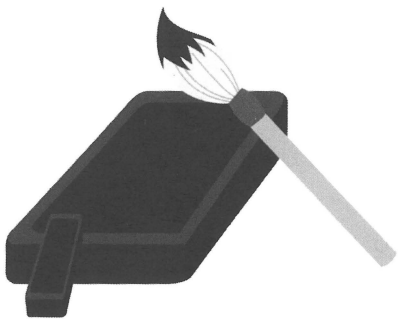
획 하나 점 하나,
반듯한 열정으로
절도 있는
楷書體의
기상이 뿜어나고,
다소곳 화려한
隸書의 단아함,
부드러운 行草書
물 흐르듯,
萬相을 함축한 오묘한 篆書,
아름다운 한글
민체 고체 궁체,

망라된 서체의 섭렵에,
고결한 인품 담아~

古今의 학문을
붓끝으로 어우르면,
수려하고 중후한
예술의 꽃이 피네

감탄이 버거워서
墨香도 잠시 숨을 고른다

아~!
스승의 경이로운 붓의 향연이여!!!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우리 하브루타 할래요?

강정일

작년에 아내는 코로나 상황에도 울주군에서 개설된 꽃차, 켈리그라피, 커피 등의 강의들을 열심히 수강을 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내게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루타를 함께 수강하자고 제안했다. 온라인으로 2시간 강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온라인이라 시간을 내기가 수월하기도 했고, 평소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에 유대인의 교육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다.

강의 첫 날, '줌(Zoom)'을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에게 하브루타를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느껴지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사진, 질문 등으로 진행된 하브루타식 강의 방식이 흥미를 가지게 했다. 무엇보다도 그날 본 EBS 영상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 회견 장에서 한국 기자 단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중국 기자가 자신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하겠다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도 한국 기자단에게 주는 기회라고 제차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질문하는 것조차도 맞고 틀린 것을 따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유롭게 자신이 궁금한 것들을 묻고 듣고 답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하브루타는 일대일, 모둠 나눔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했다. "까바, 까만, 까주" 놀이 등을 통해서 그림을 보며 함께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하면서 온라인 임에도 수강생들과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 텍스트나 그림 책을 읽고 각자 사실, 심화, 적용 질문들을 만든 후에 "줌"에서 제공하는 소그룹 기능을 이용하여 일대일 만남을 할 수 있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어서 어색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텍스트와 그림책을 공유하고 질문을 가지고 만나니 말문이 쉽게 트였고, 서로 질문을 듣고, 나누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다 보니 금세 친밀한 상대가 되어갔다. 그렇게 일대일 나눈 내용을 모둠 모임에 나와 나누면서 전체가 같은 내용으로 만나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처음에 지루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2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 점점 우리도 관계의 교육학, "하브루타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오소리네 집 꽃밭"이라는 그림책으로 같은 조 안에서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어느 날 오소리 아주머니가 회오리 바람에 날려간다. 다행히 시골 시장 근처에 떨어진 오소리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에 핀 꽃밭을 보고 아저씨와 함께 집에 꽃밭을 가꾸려고 한다. 꽃밭을 만들기 위해 집 주위를 살피는데 곳곳에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며 그곳이 꽃밭이 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조는 "왜 오소리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꽃밭을 가꾸기 전에는 집 주변의 꽃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나눴다. 마음에 여유 없는 삶을 살다가 회오리 바람으로 죽음을 넘어선 자리에서 삶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일상을 새롭게 보니 주변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 등을 나누면서 코로나로 닫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눔을 하면서 당시 한참 꽃차를 배우던 아내가 내려준 예쁜 색과 향기로운 꽃 차를 가족들과 함께 마시던 기억이 좋아서

이 그림책의 후기를 덧붙였다. 오소리 네가 그곳에 꽃차 가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꽃밭을 보고, 꽃차를 마시며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다. 그런데 이것을 듣던 한 조원이 우리의 얼굴이 나눔을 하면서 환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만남도 못하면서 무거웠던 마음들이 온라인으로 하브루타를 하면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하브루타의 여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년 10월부터 매월 1회 온라인 모임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 동안 "감기 걸린 물고기, 내가 함께 있을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산으로 오르는 길, 너는 특별하단다, 어떡하지"라는 책을 가지고 나누면서 가정과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친밀한 시간을 가져왔다. 이번 4월에는 "터널 밖으로"라는 책을 나눴는데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나누었다. 하브루타 나눔이 계속되면서 점점 서로 편안해지고, 나눔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내게는 하브루타 하는 것이 일상의 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만나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편안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선뜻 제안하고 싶다. 우리 하브루타 할래요?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동반자

김인옥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한글을 줄줄 읽지만, 나는 학교에 입학해서야 한글을 깨쳤다. 내 이름 석 자부터 시작한 한글 공부는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국어책을 줄줄이 다 욀 정도로 읽고 나니 싫증이 나서 다른 책을 읽고 싶었다. 그러나 교과서 외엔 도무지 읽을거리가 없었다. 너나 없이 가난했던 시절이라 우리 집은 물론 온 마을을 다 뒤져도 나 같은 꼬마가 읽을 만한 동화책은 한 권도 찾을 수 없었다. 읽기에 허기진 나는 글자란 글자는 다 찾아 읽었다. 길거리 간판들도 읽고, 과자봉지의 성분표도 읽고 붕어빵을 싸주던 신문지도 샅샅이 다 읽었다. 엄마가 시간만 나면 즐겨 외던 김소월 시집도 읽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죽은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김소월의 시 초혼 1연이다. 가신 임의 이름을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된다 해도, 부르다가 죽는다 해도, 설움에 겹도록 부른다는 사무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다. 여덟 살 어린 꼬마가 이런 시들을 큰 소리로 읽어댔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다. 고학년이 되어서는 아버지가 보시던 수호지, 삼국지 같은 책을 읽었지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글자를 읽었을 뿐 아직 독서는 아니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제대로 된 독서를 하게 되었다. 도서관 서가에 가득 꽂힌 책은 나를 매료시켰으며, 방과 후면 도서관에 들르는 일이 내 일과가 되었다. 독서 수준이 높은 아이라면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다 읽었을 책인 보물섬, 로빈훗의 모험, 달따냥과 삼총사, 성냥팔이 소녀, 플란다스의 개, 소공녀, 행복한 왕자 같은 책들을 그때서야 읽을 수 있었다. 셜록홈즈 시리즈 등의 탐정소설에 빠졌다가 중국 무협지를 읽느라 날밤을 새기도 했다. 그러다가 문득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작 소설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폭풍의 언덕, 빨간머리 앤, 장발장 등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 깊은 감동을 준 책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을 뛰게 한 책은 이광수 소설 〈사랑〉이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석순옥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 말로 쏟아놓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았다. 그러나 주위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집 둘레를 혼자서 빙빙 돌았던 기억이 난다.

대학교에 다닐 땐 아르바이트로 학비도 벌어야 하고 놀기도 바빠서 공부와 관련된 책 외엔 보고 싶은 책을 맘껏 볼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한 뒤에는 직장에, 살림에, 육아에 정신없이 바빠 책을 잡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 자연히 책과 멀어졌지만 마음 한 편이 늘 허전했다.

4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원없이 책을 읽는 것이었다. 마라톤을 하듯 그저 앞만 보고 살다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큰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도서관도 있었다.

참 오랜만에 들어선 도서관에선 도서관 특유의 책 냄새가 났다. 그리운 냄새였다.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며 제목을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였다.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나 많아서 숨이 찼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여 허기진 사람처럼 책을 읽었다.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은 사서 읽기도 했다.

그러다가 관장님 소개로 울주도서관 독서토론 모임인 '자운영'에 들게 되었다. 회원들이 돌아가며 선정한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나로서는 매월 엄선된 양서를 소개받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읽은 책 내용과 관련되거나, 책 속에서 소개되거나, 같은 저자의 다른 책에도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어 독서의 폭이 넓어진 점도 큰 수확이었다. 같은 책을

읽고 나눔을 하다 보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무엇보다 책을 읽은 느낌을 서로 나눌 수 있음이 행복했다. 독서회원들의 인품도 넉넉하고도 푸근했다. 나의 부족한 발표에도 귀 기울여주고 머리 끄덕여 주었다. 단순히 독서회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지면서 참 좋은 친구를 갖게 된 점도 크나큰 축복이었다.

이제 며칠 후면 독서토론회 날이다. 가슴이 설렌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달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리운 얼굴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도 선생님의 수고로 줌(Zoom)으로나마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된다.

깨어있는 삶,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도서관을 사랑하라 말해주고 싶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손에 책을 든 모습을 직접 보여주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싶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저절로 본을 보고 책을 들 것이다.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책을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한 생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인류의 과거나 다가올 미래의 모습, 광활한 우주에 대해 궁금하다면 책을 펼쳐보라 말하고 싶다. 책을 통해 인류의 유구한 역사와 문명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고,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

요즘은 한 달째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자전적 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글 쓰는 재미에도 푹 빠져있다. 서투르지만 나 자신을 글로 표현하는 작업이 뿌듯하고 재미있다.

도서관과 가까이 하면서 내 노후의 삶이 풍요롭다. 일흔의 나이에도 나날이 성장하는 느낌이다. 독서가 주는 수많은 이점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독서가 아니겠는가. 도서관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과 나

김일용

직장 때문에 고향인 부산에서 언양에 올라온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양에 살면서 여러가지 좋은점도 많긴 하지만 가장 좋은점은 바로 집 근처에 울주도서관이 있다는거다.

날씨가 화창한 날은 산책 삼아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여를 하러 간다.

날씨가 궂거나 아님 시간이 안 맞을 경우 승용차를 이용해서 반납을 하거나 또 대여를 하러 간다.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휴무를 실시해야만 했다. 눈을 뜨고 어딘가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집안에 갇혀서 지내는 생활을 근 일년 가까이 하니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 나를 구출해준 것이 바로 울주도서관이었다.

비록 울주도서관도 코로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신청하고 입구에서 신분 확인 후 대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적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나는 좋았다.

책을 빌리고 다 읽고 또 반납을 하고...그러기를 거의 일년을 반복하고 나니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다.

이제는 예전처럼 주말에 책을 빌리고 보름 후 주말에 반납을 하고 또 대출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 복귀까지 힘이 되어준 울주도서관에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언양에 사는동안 언제까지나 곁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다 다음주 토요일 자전거를 타고 또 울주도서관을 방문할 것이다.

다 읽은 책을 자동반납기에 반납을 하고 설레는 맘으로 2층, 3층을 오르내리며 5권의 책을 대출해서 즐겁게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과 나

김종연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연은 건강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인연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꿈을 갖게 하는 인연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성장이 되게 하는 인연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게 건강한 인연입니다

갈증을 목 축이는 한 방울 이슬 같은 인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천숙녀 시인의 '건강한 인연'이라는 시입니다. 울주도서관은 제게 건강한 인연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지 삼십 년이 되었고 큰딸이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도서관과 나이가 같습니다. 도서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넘나들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삼남면 교동리에 살았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동네 아이들을 나란히 줄 세워 도서관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책을 읽고, 대출도 하고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고 도서관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서관 색종이 접기 강좌에서 만든 장식품들을 저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열정만 가득했던 풋내기 엄마인 저와, 매 수업 때마다 작품을 만들어 자랑스럽게 내밀던 아이의 눈빛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어 도서관에 붙박이처럼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인연들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점심 시간이면 도서관 뜰에서 도시락을 나눠먹고 수다를 떨며 마시던 커피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되돌아보니 참으로 열정 가득했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울주도서관 독서회인 자운영독서회 회원이 되어 책을 읽은 지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독서회 회원들과 책을 읽으며 함께 성장했고 서로의 삶에 응원과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추억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마련해 준 강의도 제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 늦깎이 대학생으로, 시를 품은 시인으로 살아 온 저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 준 도서관은 제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인연이며 저를 성장하게 해 준 건강한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도서관이 중심에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울주도서관 30주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은 제게 좋은 친구이며 쉼터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처럼 때로는 그의 어깨에 기대고 때로는 제 삶의 환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울주도서관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울주도서관 30주년 기념행사 문집 수록 글 공모에 제 글을 보냅니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꽃밭은 벌·나비의 서고

문호영

하늘에 별자리이듯
영산홍 꽃 곱다.
꽃밭은 벌·나비의 서고
벌·나비 날개들이 윙윙대며
꽃송이와 연애하듯
꽃 속을 들고나며
꽃에 상처를 주지 않고 물을 긷는 것을
보았다.

울주도서관에서 지혜를 퍼가는 이들도
벌·나비처럼 책에 상처를 주지 않고
지혜만 바닥이 긁히도록 퍼갔으면 한다
벌·나비는 꽃에서 꿀을 퍼가되
상처를 주지 않는다.
꽃밭은 벌·나비의 서고엔
울긋불긋 꽃 대궐 꽃들이 가득하고
울주도서관에는 책 들이 가득하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자운영이 피는 울주도서관

박가화

자운영이 피는 계절이다. 수풀 속에 나지막이 모여 군락을 이루는 보라색 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휴식이 된다.

10여 년 전, 그때의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쳇바퀴 돌 듯 쉼없이 돌아가는 하루 그리고 하루들.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이 잘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나는 그날들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내 몸속 호르몬들이 제각각 반란을 일으켰다. 찾아간 의사는 과로를 피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휴식을 권했다. 환자에게 의례적으로 주는 생활 지침이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잡아 준 브레이크에 멈춰, 그제야 내 안에서 내게 전하려 했던 말들을 겨우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답은 책이었다. 학창 시절 도서관에서 맡곤 했던, 오래된 책 냄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근처 도서관부터 찾아갔다. 큰 길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울주도서관이다. 2층 안쪽 서고에 있는 수필 책부터 대출해 읽기 시작했다. 잠시 길을 잃었던 나와 다른 이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싶었다. 나만 그런 건지,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작가들의 다양한 생활 속 이야기는 많은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독서량이 늘면서 저자와의 대화법도 배워나갔다. 저자가 책을 통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어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독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책을 읽는 것도 사람의 대화법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끼어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책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몸도 마음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그럴 즈음 도서관에서 자운영을 만났다, 나지막이 함께 피어나는 보라색 꽃 이름을 가진 '자운영성인독서회'였다. 2층 종합자료실 한쪽에 하얀 모나미 볼펜 한 자루와 같이 놓인 입회원서가 눈에 띄었다. 조심스레 한 장을 집어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렇게 시작된 도서관에서의 매월 마지막 목요일은 내게 역사가 되었다.

독서 친구들과의 만남은 혼자 저자를 만나던 시간보다 훨씬 풍요로웠다. 각기 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결은 묵직하기도 가볍기도 했다. 같은 책이지만 몇 권의 다른 책을 읽는 기분이 들었다. 조금씩 군락을 넓혀가는 자운영처럼 독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책이 늘어날수록 내 사유의 지평도 넓어지는 듯했다.

토론의 중심을 잡아주는 지도 선생님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인이셨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독자의 행동이 따라야 함을 그분을 통해 배웠다. 읽기와 쓰기는 독서에서 한 몸이다. 책을 읽고 난 느낌을 남기기 시작했다. 수필가이신 배혜숙 지도 선생님은 독서 글쓰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권하셨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독서의 대화법임을 깨우쳐 주셨다. 선생님의 지도로 수필 쓰기를 익혀나가기 시작했고, 길을 잃어 찾았던 도서관에서의 인연으로 나는 수필가가 되었다.

도서관은 꾸준히 읽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처럼 책에도 쓸모없거나 나쁜 책은 없다. 지금도 인생의 위기마다 내 곁에는 책과 연필이 있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추억과 세상

박승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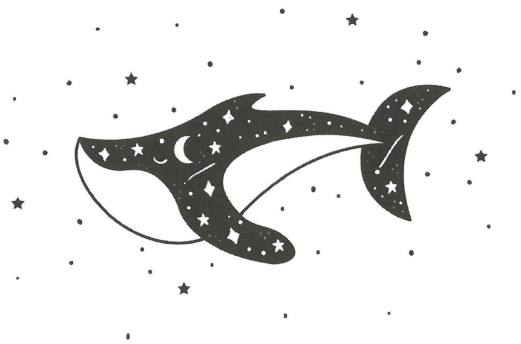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동화책 읽으러

학생 때는
친구 따라서
시험 준비하러

어른이 된 나는
혼자서
만나러

내 추억을
이 세상을

아낌없이 주는 너는
항상 그 자리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도서관과 함께, 지금도 성장 중

박정희

다섯 살 아이와 함께 다녔던 울주도서관. 도서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어린 아들과 젊은 엄마는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잉차잉차 서로를 응원하며 책 나들이로 함께 했었다. 그 아이는 세월을 지나 이제 스물여덟의 청년이 되었고 젊었던 엄마는 흰 머리카락이 은발로 날리는 노년이 되었다. 그때 시간의 기억들이 더 많은 나이를 먹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입가의 미소로 피어난다.

장소가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새롭게 만나는 공간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다른 세상에 대한 눈이 뜨임으로써 장소가 우리의 행동과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책읽기를 썩 좋아하지 않은 아이일지라도 도서관이라는 공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린 아들이 일찌감치 책과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 책보다는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림책이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화책 위주의 책들을 도서관에서 자주 대출 받았다. 한때는 그 달의 최우수 도서 대출자로 도서관에서 상품을 받기도 했었다.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을 읽히려고 강요하거나 억지 권유를 하지 않았음은 당연한 처사였고 급한 독서 지도의 마음은 붙들어 매어야만 할 터였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서 아이보다는 어미인 내가 먼저 익히고 배우고 인내해야 할 일이 우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아이의 주변에 슬며시 놓아두거나 내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며 자극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지켜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살아오면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 강요받는 일은 반항심과 억지가 앞선다는 것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어린 아이조차도 하나의 오롯한 인격체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것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강요나 억압에 의한 행위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책과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로 중요한 한 가지라고 여겼다.

돌이켜 보면 아이들을 키우며 서툴었던 초보 엄마로서의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런 중에서 자책하며 어미로서 배운 것이 있었다. 책을 읽으라고 닦달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신이 보고 느낀 시간 속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의 일상도 책을 접하며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길이 범상한 일로 채워질 것이란 사실도 알았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도 있듯 부모의 바담風이 아이에게 바람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어엿하게 밥 벌이를 하며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품위 있게 제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들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 '엄마의 반성문 (큰 아들에게)' 자작시 중에서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쑥스러워서
아니 어쩌면 비겁한 변명이었을지도

내 인생에 처음 날
여섯 살 아이가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 때
맑은 눈이 만난 풍경과 세상은 모든 것이 경이로움이었을 것이다

학습지를 하루 빼먹던 그 날
으레 잘난 훈육과 사랑이라는 미명의 손찌검으로 어린 영혼을 짓이겼었다
어미는 책 밖의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관찰에 대해서 단호했다
그것은 나중에 또는 커서 하면 된다고 닦달했었다

그 때, 그 날
나는 무엇이 그리 중요했을까
나중에는 어디에 커서는 어디로

기적처럼
여섯 살을 지나고 서른에 이른 아들에게
이제야 한다는 말
엄마도 그 날이 내 인생에 처음 날이었다고 」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픈 이의 손에 책이 들려있는 것은 얼마나 경제적이며 풍요로운 여행인지 모른다. 척박한 땅 위에서 가진 것 없다고 우울하다고 위축되거나 소리칠 것이 아니다. 곳곳에 산재한 크고 작은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며 그 공간이 주는 위안 또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넓은 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효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정서의 안온함과 자긍심, 빛나는 화석이 되어있는 활자와 역사의 인물들이 나와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충족감은 생의 자존감을 한층 높여 줄 것임이 자명하다.

코로나로 더욱 힘겨운 시국이다.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겠지만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너무 조급하게 얽매이지 말자. 일상이 지루하다고 자신을 한탄하지 말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큰 호흡으로 차분하게 가라 앉히자.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발길을 잡아서 근처 도서관으로 돌려보자. 도서관으로 향하는 걸음을 콩나물 물 주듯 내디뎌 보자. 평범함이 기적임을 느낄 수 있는 지혜의 보고가 도서관에 있음을 아는 시간을 즐겨 보시기를 감히, 권해 드린다. 한걸음 두걸음 내디디며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해 보자.

올곧게 성장하고 있는 울주도서관 30주년의 기념은 나에게도 나의 아들들에게도 무척이나 뜻 깊은 공간이다. 앞으로도 쭉 책의 향기에 스미는 지금 이 순간을 살기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생의 길이 더욱 풍성하게 환해지기를 어미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이들을 기리며 두 손 모아 기도 드려본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과 나

박진수

어느 일요일 점심 식사를 하고는 다섯살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울주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저 수십 수백 명이 한가지 목적으로 이 건물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내 주변에는 책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오늘도 의문을 가지며 책장 앞에 선다.

평소 많은 책을 접하고 읽지만 도서관의 신착 도서란만 보아도 마음이 설렌다. 저 책 중에는 백번 천번 선택받는 책이 있을 것이고, 열번만 선택받는 책도 있을 것이다. 열번만 선택받는 책에 감정이 있다면 슬프고 우울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저렇게 많은 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신기하거니와 또 아직 보지 않은 책을 만나는 것은 내 마음을 봄으로 만들어준다. 나이 마흔이 되어가면서 웬만해선 감정의 변화가 없는데도 말이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아저씨에게 소녀감성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풍파에 막히며 어딘가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그것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만드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청취자가 질문하고 스님이 답을 해주는 코너였다. 아마도 불교방송이었나 보다. 청취자는 고3 아이의 부모라고 소개하면서, 아이를 위해 대구 팔공산에 가서 소원을 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를 물었다. 답을 하는 스님께서는 팔공산에 가는 날 아침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셨다. 소원빌기는 팔공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팔공산으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하며 팔공산에 다녀오는 여정 전체가 기도여야 한다고 하셨다.

도서관에 소원을 빌러 가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 책 만지는걸 좋아하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책을 고르는 나를 상상해 보기도 하며, 도서관에 가는 날은 아침부터 아들과 도서관에 가자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책을 볼까? 무슨 책을 빌려 올까? 대화를 나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콧노래가 나오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일상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것 이야말로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다른 책 다섯권을 빌리러 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어떤 책이 나를 설레게 하고 기쁨을 줄까?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과 나

박혜령

울주도서관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주로 읽고 싶은 책만 읽는 편독이 심한 이용자입니다.
울주도서관 배근아 선생님 소개로 도서관 프로그램 중 비대면 Zoom 진행되었던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세계문학과 철학"이라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먹한 분위기에서 시작은 했으나 김응교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몰입이 되었고 관련된 참고도서 및 시대를 거슬러 코로나와 페스트, 가수 김연자, BTS의 가사소개, 영화들이 소개되어 강의를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게 해주셨습니다.
삼십 년의 두 배가 훨씬 넘어서는 내 나이입니다. 팬데믹이란 신단어가 방출되는 요즘 심신을 치유해주는 코로나 면역력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강의였으며 또한 2020년 한 해를 알차게 보냈다는 마음을 채우게 되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아련한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울주도서관 한복희 관장님, 독서지원팀 이미란 팀장님, 박혜숙 선생님, 배근아 팀장님 그리고 함께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깊은 감동과 열정적인 강의를 해 주신 숙명여대 김응교 교수님과 함께 품격 있는 시간을 채울 수 있었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교정을 떠나 일반인으로서 책을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책을 왜 읽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동기는 삶을 살아갈 때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도움을 주었을까? 그와 관련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관심을 두어야 할 요즘입니다.

정보 시대에 살아가는 요즈음 손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로 짧게 편집된 정보로 뉴스나 좋은 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전자책과 달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은 오 감각을 일깨워 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도서관을 찾을 때는 특별한 동기로 필요한 책들만 읽게 된다.
소확행으로 사는 요즈음 더욱 더 도서관은 내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도입이 되어 그에 따른 낯설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폐쇄식 도서관을 연상이 되었습니다.
사서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시민들은 호수에 떠 있는 백조의 호수를 현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눈인사만이라도 서로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면 도서관마다 비치된 책들은 선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주로 전문도서 특정코너만을 이용합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3주정도 울산으로 가게 되었고 "참새가 방앗간을 ~ " 나는 울주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서가에 눈 스캔을 해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읽고 싶은 책들이 즐비하게 수두룩 있었습니다. 책 표지 제목만 읽어도 그 책을 내가 다 읽었다. 라는 기분이 들었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상한 취미생활이다.

소유적 삶보다 존재적 삶이 더 중요하다는 파레토의 법칙 적용으로 20%:80%(존재적 삶) 읽고 싶은 책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 는 생각도 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내 눈도 사랑하니깐?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항상 그랬듯이 나의 욕구와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와 비해 울주도서관 이용자들이 독서수준도 상당했으며 강의 내용을 접하는 태도도 상당했습니다. 나를 각성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세계문학과 철학"이라는 강의 속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을 풀어 주셨다는 게 좋았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램을 열어 주신 '울주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하여 도서관 사서선생님께 정말 고마웠습니다.'라는 인사를 글로도 표현하게 되어 더욱 더 좋습니다.

지금도 회상을 할 때면 내 기분은 하늘을 쳐다보며 산과 들을 다니면서 자연을 사색을 즐기는 시간처럼 좋게 해줍니다.

또한 부산에서 같이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과 서로 강의 후감문으로 토론의 대화를 나누었고 뜻깊고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같은 소재로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도서관마다 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접하기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용자의 성향이 다르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 시간을 맞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아쉬웠지만 zoom방송으로 밴드에 실린 내용을 지금도 클릭하면 볼 수도 있어 좋기만 합니다.

요즘에는 강의내용을 PDF나 HWP file로 다운로드 해주는 서비스 방식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접수한 수강생들에게 특혜로 책자도 발송이 되어 그 또한 고마웠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확신시켜 주는 힘을 찾았습니다. '산을 끼고 강 또는 계곡이나 바다를 끼고 사는 집 환경을 최고다.' 라는 강의 내용 또한 우리는 어떤 집을 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 자연과 더불어 공존의 의미를 생각하고 늘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고 사는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번 일깨워 주면 다시 자각하게 해주는 순간을 맛보는 강의가 참 맛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주도서관과 나" 라는 제목만 읽어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고 고마운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인연의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서툰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과 나

신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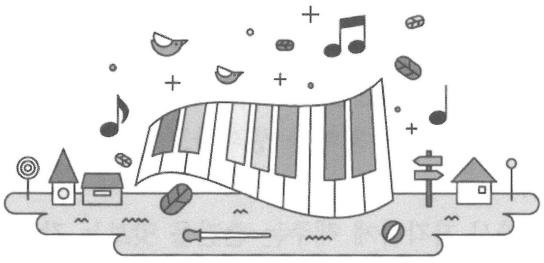
울주도서관은 나에게 휴식처이다.
집안일로 힘들 때 가서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다.

울주도서관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영화관이 없을 때 도서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

울주도서관은 나에게 친구이다.
혼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울주도서관은 나에게 희망이다.
도서관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였다.

이런 울주도서관이 난 너무 좋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보물창고

엄재우

관심이 식어버린
아이들이 가는 곳

그곳을 우리는
보존실이라고
부른다

사실 그곳은
나의
보물창고다

내 인생에
등대와 같이
한 줄기 빛을
비춰준다

이 책을
스쳐지나갔던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진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과 나

이미정

울주도서관은 나의 삶과 동고동락한 곳이다
내나이 벌써 40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까지 지금은 딸과 함께 도서관을 가고 있다
국민학교 시절 상북에서 어음 하리가 어디라고 버스타고 언양에 내려 어음까지 걸어 다니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때는 책이 먼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끌려서 갔다
처음 책이란걸 접하게 되었고 마냥 신기한 마음에 계속 도서관을 가게 되었다

중학교 시절 도서관은 봉사활동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
책도 읽고 봉사활동도 하는 공간 그러면서 책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좋으신 사서분들과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고등학교 시절은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고공분투를 한 시기였다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또 제일 재미있던
시절을 여기 도서관에서 함께였던 것 같다
열정이 충만하고 누구보다 눈에 불꽃이 피어오를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교 시절은 시험, 과제로 필요한 서적을 마음껏 보고 마음껏 공부했던 곳이다
이 시기는 취업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좌절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게 내 꿈을 펼쳤던 것 같다

지금은 초등학교 딸과 격주로 도서관을 가서 나는 수필서나 에세이집을 보고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두, 신비아파트 등을 책을 빌려본다
딸과 함께 다시 찾은 도서관은 언제나 그렇듯 그 자리에서 나와 내 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다

나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곳이 울주도서관이고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늘
나와 함께할 곳이다

책은 나를 더욱 단단하고 굳건하게 바른길로 인도해주며
나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소중한 양식이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30대의 나 그리고 울주도서관

이수민

울주도서관이 개관한 지 30년, 내 나이도 어느덧 30대.

한자리 숫자에서 출발해 벌써 두 자리에 앞자리도 세 번이나 바뀐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게 신기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긴 나에겐 좀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다.

책에 전혀 취미가 없던 내가 울산 시내에서 이 먼 울주군까지 가게 된 건 엄마가 이곳에 발령이 나 엄마 손에 이끌려 한 번 두 번 가다가 엄마 보러 간다는 핑계 삼아 책도 보고 문화 프로그램도 참여한다고 버스를 타고 혼자서 몇 번씩 방문했었는데 그때의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일까? 이제는 내가 그리고 언니가 엄마 뒤를 이어 사서가 되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엄마에게 한 말이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

"엄마 도서관이 왜 이리 코딱지만 해?"

어린 나를 꿈꾸게 만들어 주었던 그 코딱지가 리모델링도 하고 깔끔히 단장해서 새로운 어린이들의 꿈을 그리고 어른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쭉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진다. 도서관 속에 보물 같은 책들이 있고 또 그 책을 위한 아늑한 공간이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용자를 위해 친절함과 전문성을 갖춘 사서 선생님들과 여러 직군의 직원분들이 계시기에 긴 세월 동안 울주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 생애 첫 문화 프로그램은 울주도서관에서 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많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좋았던 기억이 크게 남아 대학생 때도 평생교육을 부전공하고 현재는 경기도에서 문화 프로그램 담당 사서로 일하고 있으니 울주도서관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시고 나도 대학생이 되어 타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더욱더 멀어져 어린 시절 이후로는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항상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도서관.

그곳이 여기 울주도서관이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둔 엄마의 마지막 종착지가 울주도서관이 되어 잠시 잊고 지내온 내 어린 날의 기억들을 되살아나게 해주었다.

나와 함께 한 울주도서관이 앞으로도 더 오랜 세월 나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해 주길 바란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과 나

이영수

어린시절 중학교때 담임이던 국어 선생님이 독서를 많이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이 어린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억지로라도 독서를 많이 하려고 했다. 고등학교 졸업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공공도서관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역사소설과 특히 장편 대하소설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특히 일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우연히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떤 분야든지 일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독서도 하고 수험공부(세무사시험)도 하였다. 도서관에서 공부한 시간을 매일 누계를 적어 나가 거의 일만 시간을 달성했을 무렵, 운좋게도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시험에도 합격했다. 현재는 2011년부터 세무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도서관 일만 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일 누계시간을 적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사태만 아니었으면 벌써 일만 시간을 달성했을텐데 코로나사태로 현재 9천6백여 시간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울주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고향 후배님들이여 무조건 도서관에서 책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일만 시간 이상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거의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장하고 싶다. 집에서 책 보는 것보다 왠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도서관 분위기에 몰입되고 최면에 걸려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지루한줄 모르고 책을 보게 된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60대 후반인 지금도 집에서 책보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책 보는 것이 훨씬 집중력이 있고 능률이 오른다. 나는 정말 도서관과 좋은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같다. 늘 도서관에 감사하고 있다. 늙어서라도 내 몸을 운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사랑할 것이다.

현재 나는 울주도서관과 부산의 다대도서관을 함께 이용할수 있는 통합도서 회원증을 가지고 있다. 주중에는 직장이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있어서 울주도서관을 틈틈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부산의 자택 인근에 있는 다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부산시내 공공 도서관은 주차시설이 좁고 이용하기 어려운데 울주도서관은 항상 넉넉하고 푸짐하다. 물론 시골이라서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소설류 문학책도 도서관 역사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부산의 다대도서관에 비해서 오래된 고전 문학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빌게이츠)' 울주도서관 현관 입구 창문에 쓰여 있는 이 글이 너무 너무 맞는 말이고, 볼 때 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에서의 추억

이준호

가끔 일이 있어 KTX역을 지나다보면 버스 한쪽으로 울주도서관이 보인다. 지금은 신관도 증축하고 주차장과 마당도 잘 정비되어 있지만,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울주도서관을 갔을 때는 논밭 한가운데 있던 작은 도서관이었다.

울주도서관에 가게 된 이유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단지 나를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할 수 없었던 어머니께서 책을 읽힐 겸 해서 데리고 왔을 거라 상상할 뿐이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들고 차로 40분 걸려 도착한 3층짜리 작은 도서관이 어렸던 나에게는 무척 심심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숙제를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해치우고 도서관 안에 있던 만화책을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하면 도서관 옆에 있던 유치원에 몰래 들어가서 미끄럼틀을 탈 수 있을지 고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도서관 밖을 나와서 논두렁을 걷다 보면 자그마한 벌레들과 개구리들이 눈에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면 어린 나는 돌멩이를 들어 자그마한 벌레나 개구리의 주변에 던져서 반응을 보고는 했다. 열 번 중 아홉 번 정도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 어떨 때는 어차피 못 맞출 거라는 듯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샘이 나서 맞추려고 돌을 던지곤 했었다. 물론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다. 어찌 보면 그 개구리들의 판단이 옳았던 셈이다.

배부르게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도서실에 들어가 재밌게 볼만한 책을 찾았다. 주제는 그때마다 달랐지만, 만화 쪽을 유심히 살폈던 기억이 난다. 꽉 끼어 잘 빠지지 않는 책을 빼려고 손에 힘을 가득 주어 빼내다 보니 겉표지가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엉망인 책들이 참 많았다. 그리고 보통 그런 책들이 표지가 멀쩡한 책보다 재미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었기 때문에 너덜너덜했던 게 아닐까 싶지만, 그때의 나는 별 생각없이 '나만의 비법'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렇게 책을 보다가 지겨워지면 도서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지저귀는 새와 내가 두 팔로 안을 수 없을 정도로 두껍던 나무와 이리저리 불던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만들어주던 구름과 이름모를 고양이와 동생을 간지럽히기 좋은 강아지풀과 논에서 우리도 있다며 울던 개구리가 있었다. 그들과 함께 놀다보면 주말이 금방 지나갔다.

월요일이 되어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주말에 뭘했냐고 물어보곤 했다. 그러면 나는 도서관에 갔었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다들 책밖에 없는 곳에가서 지겨웠겠네 하고 말했고, 그러면 나는 속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 라고 생각하곤 했다.

지겨웠기는 했다. 하지만 울주도서관에는 책만 있던 공간은 아니였다. 그곳에는 자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나의 마음의 안식처 울주도서관

정건애

바쁜 일상 속에서
나에게 꿈을 심어주는
높은 하늘이 되어주고

각박함속에서
나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숲이 되어주고

건조하고 메마른 나의 마음에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촉촉한 비와 해가 되어주고

쫓겨가듯 바쁜 걱정거릴
날려버릴 수 있게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는

울주도서관이 있어
다시 힘을 내어 본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과 나

정윤정

먼저 울주도서관 30주년 축하합니다.
벌써 30살이라니 깜짝 놀랐네요.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고 집과 가까워 울주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들르는 곳이지요.
처음 도서관에 갔을 때 책을 어떻게 찾는지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스럽고
헤매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책도 찾아주시고 친절히 방법도 알려 주셨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책도 추천해주시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주도서관과 선생님들을 좋아한답니다.
또, 울주도서관에는 무엇보다 책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껏 계속 울주도서관을 이용하지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 개방도 조금씩 밖에 안해서 책장에서 바로 책을 뽑아
책을 읽고 오는 재미가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도서대출을 위해 울주도서관을 방문한답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관 앞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잘 어울리고 이용이 편리한 것 같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고 책이 읽고 싶을 때 대출할 수 있고 반납도 쉬우니까요. 정말 좋아요.
전에는 아이들은 주말에 도서관에서 하는 알찬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연극 등 공연도
보고 저는 주중에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를 들으며 지식도 쌓고 도서관도 더 자주 오게
되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수업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또 수업을 들으러
가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 아쉬워요.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어 도서관을 활짝 개방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울주도서관 30주년 한 번 더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자꾸자꾸 오고 싶은 울주도서관이 되길 바랍니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등나무에게

정정화

안녕? 등꽃이 필 무렵이면 네 생각이 간절해지곤 해. 사라져 버린 네 모습이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질 않는구나. 네가 있던 자리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너의 부재에 때때로 슬픔에 빠지기도 한단다.

내가 너를 만났을 때는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시기였어. 다니던 직장을 육아와 건강 문제로 그만두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 키운 뒤였던 것 같아. 육아로 정신없는 시기를 지나고 나니 다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됐고, 그때 찾은 곳이 도서관이었어. 미래에 할 만한 일을 찾아 공부를 하고, 자료실에서 책을 빌려 읽었어.

그러다가 도서관 친구들을 만났지. 그중에는 독서회 다니는 친구가 두 명 있었는데, 내게 자운영 독서회에 들어오라고 했어. 나는 봄 야외 토론 모임에 함께해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 야외 토론 장소는 동리목월문학관이었단다. 그 날 김동리 작가와 박목월 시인의 삶과 문학에 대해 훑어보고, 야외에 전시된 시화전을 감상하며 그 동안 잊고 지내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됐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직장 생활을 했던 거였어.

공부와 더불어 독서회에 가입해서 책도 꾸준히 읽었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지도강사를 하면서도 한 달에 한 권씩 독서회 책은 빠트리지 않고 읽었지. 도서관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나도 열정을 갖고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 등나무 밑은 좀 외진 곳이었어. 그래서 공부하던 친구들과 모여 삼겹살도 구워 먹고, 칼국수도 끓여 먹고, 도시락도 먹곤 했지. 햇살이 보라색 등꽃 사이로 비칠 때 포도송이처럼 흔들리는 꽃들이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 현란한 네 몸짓이 생생하게 떠올라.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삼겹살은 너와 안 어울리긴 해. 그런데도 우린 정말 맛있게 먹었어. 사계절이 다 좋았지만, 등꽃이 필 때가 가장 예뻤어. 그 황홀한 보랏빛의 출렁임이라니…….

혼자일 때는 친구가 되어주었고, 여럿과 함께일 때는 그늘이 되어 주었던 너. 지금은 어느 곳으로 이사해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나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단다. 2015년에 그토록 원하던 작가가 됐어.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네가 친구가 되어준 덕분이야. 봄날 바람에 살랑거리던 꽃 향을 떠올리면 힘든 일도 잊을 수 있었거든. 간들거리는 꽃송이와 푸른 잎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야. 그늘 밑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어떤 근심도 사라져 갔어. 다시 한 번 네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살랑대는 꽃송이를 볼 수 있다면,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던 푸릇푸릇한 잎사귀를 마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봄날 찬란하던 보랏빛 꽃잎, 여름날의 강인한 잎맥, 가을날 조롱조롱 매달린 열매들, 햇살에 자리를 내어주는 겨울날의 휘감아 얽힌 줄기까지 사랑스럽지 않은 때가 없었어. 지금도 너를 생각하면 많이 그리워. 나도 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휴식처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네 생각하며 좋은 글 쓰도록 애쓸게.

나무야, 내 맘속의 등나무야! 힘들었던 때를 함께 건너 준 고마운 친구야!
보고 싶다, 많이…….

2021. 등꽃 피는 봄날에 친구 정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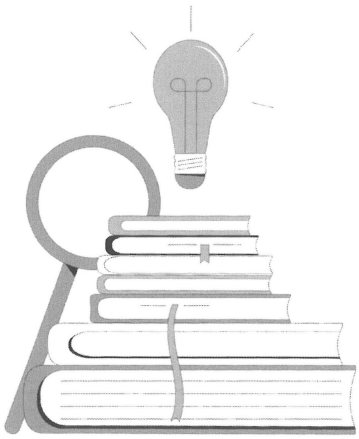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책

조종순(가까운도서관 사서)

책 속에 희망 있다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 있다
책은
세월이 지나도
썩거나 녹슬지 않는
인류의 희망이다.
네가 희망을 갖고 싶거던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은 적이 없는 책에게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놓으라 하라
떼를 써도 좋으리

- 울주도서관 개관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고마운 나의 언니

최정란

햇살이 따사롭고 여기저기 다채로운 꽃들이 저마다의 예쁨을 자랑하며 피어나는 봄이다. 아침이면 마당의 햇볕과 봄바람 속에 앉아 잠시 풀을 뽑아보는 봄날의 여유가 참 좋다. 이 작은 평화로움을 받아들이기까지 제법 오래 걸렸다는 생각을 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본다.

며칠 전에 올해가 울주도서관 개관 30주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일까? 요며칠 도서관과 관련된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서 도서관을 오가던 날들, 오늘같이 환한 봄날 용기 내어 〈자운영독서회〉에 입회하던 아침, 도서관 마당에서 관람했던 음악회. 모두 소중하고 따뜻한 기억이다. 결혼과 동시에 언양에 와 살게 된 나에게 이 곳 울주도서관은 마음을 다독여주고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친정언니 같은 곳이다. 도서관에서 개설한 MBTI와 애니어그램 수업은 새롭게 관계 맺은 가족구성원들이 성격상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었고 독서치료 수업은 관계로 인해 생겨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자운영독서회 회원들과 지식과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동안 딸아이는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와 〈연날리기독서회〉 회원으로 주말에는 〈토요논술교실〉 수강생으로 지혜를 쌓아가며 성장했다. 그 아이가 오랜 시간 봉사의 기쁨을 나눈 곳도 바로 자신이 자주 다니던 이 도서관이었다. 시낭송강좌를 열어 내게 시를 읽는 기쁨을 되찾아 준 곳도, 다시 공부를 시작한 후로 언제든 학습 자료를 찾으러 달려가는 곳도 바로 이 곳 〈울주도서관〉이니 생각할수록 푸근하고 믿음직한 언니다.

일요일 저녁. 휴대폰을 열고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한다. 최근 수요일엔 낭독회, 금요일엔 〈미술로 만나는 인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고정적으로 도서관에 간다. 그것만으로도 뿌듯한 한 주가 되리라 생각하면 사소한 기쁨으로 마음이 밝아진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까지 가는 길

한성규

내가 사는 언양에서 울주도서관까지는 거리가 있다. 버스를 타면 금방이지만 걸어서는 30분을 걸어야 해서 애매한 거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차를 이용하지만 버스를 타자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실의 갑갑한 분위기가 싫었던 나는 확 트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울주도서관은 고등학교까지 내 인생의 거의 반을 보낸 장소였다. 대학을 서울로 가고 해외에서 취업을 해 울주도서관은 나에게 잊힌 장소가 되어버렸다.

거의 20년이 지나 다시 찾은 울주도서관은 신기하리만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도서관 뒤에 병풍처럼 늘어진 산세, 언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논길도 그대로였다. 그 산을 뚫고 지나가는 KTX기차가 생겼으며 논길에 있던 초가집들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려고 하는 것 정도가 변화라면 변화였다.

내가 학생시절 때 공부가 안될 때마다 보았던 책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예전에 읽었던 소설이나 그림이 많은 책들이 손때가 묻은 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추억에 잠겨서 도서관 곳곳을 돌아보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일어났다.

"니 XX아이가?"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만난 것이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20년간 흘러왔던 각자의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몇 시간에 다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흘러 넘쳤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언양으로 가는 논길을 걸으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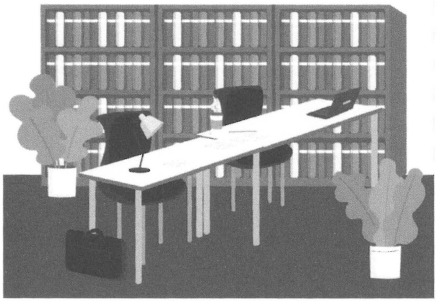
언양 일대는 그동안 많은 모습이 바뀌었다.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으며 언양초등학교 일대는 읍성이라는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가게들이 많아졌으며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어 이제 길거리를 걸어도 아는 사람들을 마주칠 일도 없어졌다. 또 서울까지 사람들을 싣어 나르는 KTX역이 생겨서 사람들의 유동성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지만 언양 일대는 울주도서관을 중심으로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울주도서관, 꿈 많던 내 학창시절을 그대로 담고 있는 추억의 보고로서 아직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울주도서관만은 그 시절 그 때의 책을 간직한 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정말 고맙다.

[울주도서관과 나 관련 글 공모작]

울주도서관 나들이

허숙경

우리 가족은 매주 여행을 떠난다
울주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책 속에는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태국도 있다
도서관의 책 속에는
모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전쟁도 있다
도서관의 책 속에는
링컨도 있고
단군도 있고
정조도 있다
코로나시대에 주말여행이라니
참으로 행운이 아닌가?
우리 가족은 매주 여행을 떠난다
울주도서관으로



[강사 마당]

나침반을 마련하는 일

강영숙(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 강사)

작년 3월로 예정했던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 친구들과의 첫 만남이 코로나19로 인해 불발되면서 6월에 첫 만남을 가진지 어느새 1년이 되어 갑니다.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손끝에 닿듯 생생히 기억납니다. 해가 바뀌면서 일부 회원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회원들이 입회하고 하면서, 어느새 작은나라어린이독서회 회원들과 11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아쉬운 점도 많고 보람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독서회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수업인지라 수업을 못한 달도 있었고, ZOOM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비대면 이다보니 아무래도 수업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원들이 독해력이 향상되고, 독후 활동에서 표현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회원들이 기특하고 강사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책을 읽고 독서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작은 도서실이 있었는데 방과 후에 책을 빌리려면 줄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서실 내부공간이 좁아서 줄은 밖에 서 있어야 했는데 그때 정수리에 닿던 뜨거운 기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한 권의 책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책을 읽는 동안은 밥 먹는 시간도 책을 덮을 수가 없어 아버지께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 삶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은나라독서회회원들이 읽는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쌓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의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무수한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멋진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디 성능 좋은 나침반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나침반을 마련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강사 마당]

책을 견디는 시간

김경숙(책사랑중학생독서회 강사)

핸드폰은 요즘 아이들이 집착적으로 애정하는 절친이다. 비단 아이들뿐이랴. 주변을 살펴보면, 횡단 보도를 건너는 와중에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어른들 또한 자주 목격된다. 핸드폰에 대한 집착은 병적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리기라도 할라치면 마치 심장이나 숨길이 막힌 경우처럼 답답해하거나 극도의 분리불안증세를 보인다. 핸드폰과 한몸이 된 것이다. 더해서 이미지로 중무장한 핸드폰 속 세계는 한눈팔지 못하게 만든다.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뉴미디어 시대에 이 초밀착적인 관계를 뚫을 대안이 없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글을 쓰는 행위는 더더욱 대안으로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다. 애초에 게임조차 안 되는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누군가는 책장을 넘기고 이야기를 따라가고 의문을 달고 질문을 만든다. 이미지 한 컷 없는 세계를 탐험하며 이미지를 상상한다. 상상은 시가 되기도 하고, 감상문이 되기도 하고, 초단편 소설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그렇게 울주도서관 '책사랑중학생독서회' 회원들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즐긴다. 핸드폰을 엎어두고 책을 견딘다. 그것은 마치 오디세우스의 고행과 유사하다.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귀항하는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제 몸을 묶고 세이렌의 노래를 견디듯,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다.

무한의 시간을 견디는 것으로 무한은 경험될 수 있다. 이는 도서관의 책들이 책꽂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자리를 견디는 일과 같은 이치이다. 책이 책으로 묶이는 이유는 읽히기 위함이며, 책이 책꽂이에 꽂히는 이유는 뽑히기 위해서이다. 그 자리를 지킬 때라야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수 있다. 한 권의 책 속에는 그 책의 세계가 들어 있고, 도서관은 그렇게 각자 다른 세계들로 빼곡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모든 책은 유일무이하다'(보르헤스, 「바벨의 도서관」). 결국, 누군가 책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은 유일무이한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일이며, 책을 견디는 것으로 새로운 무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책사랑중학생독서회' 회원들 각자의 세계관 역시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책으로 나누는 그들의 토론을 발견이자 발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일무이한 회원들의 세계가 유일무이한 책의 세계를 공유할 때 서로의 유일무이함을 발견하게 된다. 타자의 다름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내 목소리를 낮추어야 나와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너와 내가 책과 함께 사계절을 보내면서 그들만의 '우리'를 발명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강사 마당]

울주도서관과 맺은 인연

김영애(초등학력인정과정 문해교육 글나래학교 강사)

먼저 울주도서관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울산 남구에 살고 있는 제가 울주도서관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부터 7년 전, 초등학력인정과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입니다.

초등학력인정과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이란 것은 학령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초등과정을 밟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성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깨우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글을 몰라서 겪었을 아픔과 못 배운 한을 치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3년 과정을 거치면 초등학력인정서와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서 울산광역시에는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의무교육인 중학학력 미만 성인 인구가 86,349명, 그중 초등 잠재 수요자가 24,639명, 중등이 61,710명이 있습니다. 이중 울주군은 초등잠재 수요자는 7,298명, 중학교가 13,71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울주도서관에 글나래학교가 생기면서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은 울산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씩 울주도서관을 오가는데, 울주도서관의 글나래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쾌적한 환경으로 학습자들과 더불어 최고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신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학습자들의 눈물겨운 열정으로 이룬 쾌거는 1회 졸업생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종 국민투표까지 거쳐서 10명이 받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번 2회 졸업생도 '전국 성인문해교육시화전'에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마다 '울산평생학습박람회'에서 다양한 상들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고, 각 단계마다 문집을 내고, 학교 오기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체험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감과 더불어 하루빨리 학교에 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글을 모르니 한글학교 학생모집 홍보용 벽보를 붙이고 현수막을 건다 해도 본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제분들이나 친지, 이웃을 통해 오시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학생모집 홍보할 때는 보는 것 보다는 아침, 저녁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게 되고 초등학교 졸업이 되면서 중학교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2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학습자들께 절실하게 다가오는 중학과정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오시기 때문에 3년하고 나서 중학교에 바로 입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의 바람이 있다면 "울산까지 가기는 정말 힘들고 울주도서관에서 1년 중학예비과정을 할 수만 있다면 중학교를 꿈꿔 볼 텐데" 하십니다. 이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울주도서관이 있었기에 울산까지 가지 않고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하실 수 있었던 학습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해 하며, 앞으로 시간 내서 도서관에 책도 빌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하는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울주도서관관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울주도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처럼 오래도록 지역 주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심신이 치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사 마당]

울주도서관과 나

- 울주도서관 30주년을 축하하며 -

김영진(서예동아리 지도강사)

울주도서관은 내게 있어서 출장 강의의 발원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3월 서예학원을 개원하면서 홍보용 전단지를 신문에 넣었는데, 당시 사서 담당께서 챙겨 놓았다가 1년 후 서예 강좌를 개강하면서 위촉받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차 강사로서 부족한 게 많았음에도 열심히 따라 준 수강생들 덕분에 소문이 나면서 10여명이 20여명으로 늘고 주변 복지회관과 자치센터 강좌에도 위촉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이어 오게 되었습니다.

20년을 도서관과 함께 해 오면서 위치적으로 복잡한 도심이 아닌 사방이 트인 곳에서 강의를 진행함으로 올 때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궁금한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도서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강생과는 교학상장 하는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서법 외에도 인생의 열정과 따뜻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행여 부족 할 새라 물심양면 챙겨 주시는 관장님과 과장님, 담당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울주도서관이 새로운 사업을 접목하면서도 인문학과 평생교육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며 꿈과 역량, 여가선용의 든든한 보고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강사 마당]

숲속엔 옹달샘, 우리 옆엔 울주도서관

김희진(하브루타코칭 자격과정 강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톨스토이가 말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작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를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글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착한 일을 하며 보내는 지금 이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전하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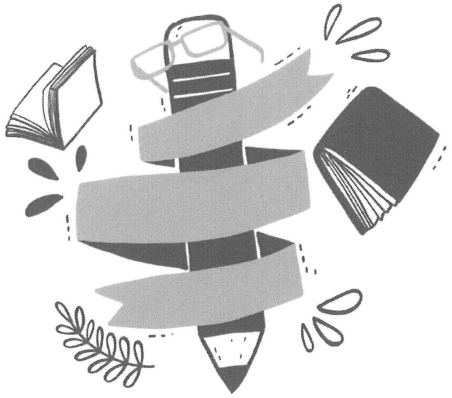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꿈꾸는 좋은 어머니 15분을 울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해 봄 학기였습니다. 뜨거운 햇살이지만 나무를 보며 산책하듯 오신 분,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드라이브 삼아 오신 분, 모두 다른 길을 걸어 왔지만 오로지 가족과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울주도서관 평생교육강좌 '하브루타 부모교육'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울주도서관 봄학기 하브루타 강좌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어 5월 중순부터 8주 동안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7월 중순까지 마무리 되었을때는 아쉬운 마음에 또 언제 만날 수 있냐는 마음들을 쏟아 내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소통했습니다. **울주도서관을 통해 우리는 나, 육아, 일상, 교육을 위해 소통할 좋은 하베르(우정, 친구의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울주도서관에서 가족에게 줄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 대화, 스토리, 그리고 질문입니다. 질문하면 바로 하브루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란 유대인의 교육으로 유대인가정의 문화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유대인의 하브루타부터 한국형 하브루타까지 그리고 가족의 온도를 높이는 하브루타 대화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도 다녔습니다. 아이에게 "네 생각은 어때?"라는 존중의 질문을 시작으로 그림책과 영화, 명화, 속담, 단편소설 등 가족들과의 추억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알려드렸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가족이기에 당연함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더욱더 노력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문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 과정을 강의한 **필자에게 울주도서관은 옹달샘과 같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 숲속 친구들에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쉼을 주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옹달샘처럼 저에게도 울주도서관이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울주도서관이 올해로 30주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며 그 자리에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봄학기에 만난 울주도서관은 울주군민들을 위해 언제나 맑은 샘을 나누어 주며 쉼터도 되어주고 만남의 장소도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울주도서관의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며 필자 또한 맑은 물 한 모금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강연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울림이 있는 강의, 열정, 긍정의 시선으로 울산에 좋은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강사 마당]

도서관 수업을 하면서

청사 남중모(문인화 동아리 지도강사)

많은 분들이 도서관 평생교육 강좌를 통해 문인화 수업 및 타 강좌까지 많은 지식과 발전을 가져왔다 생각듭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울산미술대전, 타시도 국전까지 초대작가 및 입상을 하여 개인활동을 할만큼 역량을 지녔습니다. 그러다보니 울산예술 발전과 시민들께 많은 기여가 되었다 생각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 운영상 동아리 수업으로 전환되어 수업하니 개인경비가 조금 들다보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러곳 수업을 해오지만 한복희 관장의 남다른 평생교육 강좌수업과 동아리 강좌에 관심을 주심에 많은 회원님들도 편안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느낍니다.

조금의 바램이 있다면 연말 작품 발표회때 작은 전시공간이나 도록제작에 지원을 조금해 주시면 회원님의 사기충전과 동아리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좌 모집할 때 동아리반 모집도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합니다.

저 역시 더 좋은 작품을 위해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울주도서관 문인화 동아리를 우뚝서게 할 생각입니다.



[강사 마당]

행복을 선물하는 마법의 도서관

이영주(인문학이 있는 미술관 강사)

돌계단에 발을 올리는 순간, 어디선가 들리는 청아한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았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작은 새들의 인사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싱그러움과 돌 틈 사이 피어있는 들꽃의 향기가 있는 울주도서관은 따뜻함과 상쾌함으로 행복한 미소를 만드는 마법의 도서관이다.

눈이 번쩍, 금요일이다.

강의가 있는 날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내가 사는 반구동에서 울주도서관은 제법 먼 거리다. 하지만 강의를 가는 날은 멀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설렌다. 가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나들이하는 기쁨과 한 폭의 그림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미술인문학은 그림을 통해 화가의 정신적 세계와 삶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는 방법과 소통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고 빌려주는 역할만이 아니다. 삶의 단계를 올리는 한 방법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책을 볼 수 있고, 고를 수 있기에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쇄기술의 발달로 많은 책들이 나오면서 공공도서관은 책을 읽고, 배우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되었다. 이곳 울주도서관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앞으로 더 도서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석보다 비싼 책의 소중함과 행복을 선물하는 마법의 도서관이 되길 바래본다.

행복한 하루는 행복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공식처럼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 바로 울주도서관이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한 권의 책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팍팍한 마음에 여유를 주어, 도서관에서 받는 상상이상의 에너지로 삶을 바꾸는 힘을 키워보자.

[강사 마당]

책을 살리는 곳, 도서관

장경숙(진로독서·인문학 강사)

'울주도서관'과의 인연은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통해서 중학교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수업은 너무나 매력적인 이벤트 같았다.

나는 서른 권의 책을 담은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인문학 강의를 했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된 셈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학생들도 많았다.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보니 엎드려 자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그 때 나는 엎드린 학생들이 고개들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자신의 슬픔과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의 질서나 지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이야말로 학생들에게는 혼돈의 시간이기도 했다. 인문학은 정직함을 배우는 것,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책을 읽게 만드는 곳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만드는 공간이다. 사춘기라는 무중력의 터널을 지나 중력의 공간으로 가려는 청소년들에게 기차표를 건네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책을 매개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곳,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전에 내가 알던 도서관은 책의 무덤 같은 곳이었다. 도서관이 매개가 되어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는 달리 도서관 구석에서 잊혀져가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책들을 살리는 일만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도서관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그 해의 도서관은 살아나고 있었다. 책이 살 길을 찾는 중이었다. 살아난 것은 도서관만이 아니었다. 인문학을 매개로 만난 학생들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학생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회의 이벤트처럼 만나고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울주도서관은 지금도 무한변신 중이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방을 드나드는 것이 일상이 될 때까지 도서관이 무한한 활용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직원 마당]

울주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며

박화연(행정주무관)

울주도서관 30주년 기념 행사 덕분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어 어느 누구보다 감회가 깊어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지금의 울주도서관 별관 건물에 자리했던 강남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이 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15여년 후 다시 시절 인연을 맺게 되어 울주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강산이 두 번 변모할 세월동안 울주도서관 앞으로 사통발달의 중심 교통인 울산역이 생기면서 울산광역시 성장 촉진 지구로 지정되고 역주변에 아파트, 상가 단지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으며 유에코(UECO) 건물 준공이 코앞이니 격세지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동안 울주도서관은 울산 시민들의 편안하고 유익한 휴식처로 자리매김 하면서 보이지 않는 책임있는 손길로 끊임없는 정비와 관리를 통해 울산과 언양의 나들목을 지키고 있다.

울주도서관은 책을 좋아해서 제집처럼 드나들던 어린아이를 책을 잘 빌려가는 부모로 성장시켰고 문맹의 할머니들을 문자에 눈뜨시고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력했고 가난한 취준생과 공시족들의 부담없는 자습터가 되어 여러 분야 일꾼과 공무원들을 탄생시켰고 사교육비 들여서 어렵게 해야 하는 청소년 진로 탐색, 초등학생 독서 논술, 은퇴 후 취미 활동, 유아 도서관 책 읽기 현장체험 등 전 연령층의 울산 시민들이 부담없이 드나들며 배워가고 지혜를 얻어가는 희망과 목표를 갖는 곳이었다.

지난 30년간 울주도서관에서는 알게 모르게 시민들과 참 많은 일들을 함께하였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발자취가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주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읽고 싶은 책을 구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책임감을 느끼며 도서관 건물을 관리하고 가족과 같은 맘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서분들과 직원들, 관장님, 청소원, 경비원분들의 보이지 않는 숨은 노고가 오롯이 녹아나야 한다.

우리 모두가 스쳐가는 시간 속의 인연이지만 울주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각자의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물심양면 노력한 덕분으로 편안한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존재함을 30주년 기념을 맞아 진심으로 자축하며 더불어 울주도서관을 애용하시는 시민들이 계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음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직원 마당]

울주도서관과 인생 2막

배근아(자료운영팀장)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었을 '삶이 변화하는 순간'을 맞이 할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19가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 '변화'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삶의 변곡점을 겪어 내며 우리는 또 한 번 자라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벽면에 붙은 내용이다.
곧 6개월 후 정년퇴직을 맞게 되는 나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동안 도서관 다니느라 못한 여가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울주도서관은 두 번이나 근무한 도서관이라 남다른 애착이 가는 곳이다.

2000년 울주도서관으로 발령이 났을 때는 리모델링 하기 전으로 어린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울주군 지역에 공공도서관은 울주도서관이 유일한 공공도서관이었다.

지역주민들이 울주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여 주말이면 도서관이 이용자들로 붐비곤 했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반구대 암각화로 소풍을 가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웃고 함께 어울렸던 신불산 작천정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떠오른다.

32년이란 오랜 시간을 도서관 사서로 재직하면서 깊은 감회를 느끼며 공직 생활을 마치기까지 인생 1막을 울주도서관에서 마무리하게 되어 행운이라 생각된다.

도서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되돌아보니 특히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개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참 보람된 일이었다.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무사히 완주했다는 안도감은 나에겐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한편으로는 도서관 사서로서 이용자와 자료 사이의 적극적인 중개자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잘하였는지 하는 아쉬움 또한 남기도 하다. 그리고 인생 2막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한다.

앞으로도 울주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책과 함께 토론하는 곳이자 언제든 찾아와서 조용히 휴식하며 교류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울주도서관과의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을 돌아보며 퇴임하는 날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관장님, 과장님, 동료 직원분들과 이용자 여러분들의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남기고 싶다.

[직원 마당]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나

이민미(자료지원팀 사서)

저는 초등학생 때 주말마다 가족들과 울주도서관에 놀러갔습니다. 당시 울주도서관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도서관으로써 작지만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매월 독서퀴즈대회를 열었는데 동생과 저는 빠짐없이 참여하여 상품도 받고, 상영해주는 영화를 보기도 했으며 구연동화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울주도서관은 어린 저에게 즐거운 놀이터이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학교와도 같은 중요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책 저 책을 찾아 읽다보니 도서관에서 수여하는 다독상을 받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2007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전만큼 자주 도서관에 가지는 못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러 가거나 시험기간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종종 도서관을 찾고는 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문헌정보학과'라는 학과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울주도서관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였고 희망하던 문헌정보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사서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2019년 울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 사서직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서공무원으로서 저의 첫 발령지는 울주도서관이었고, 이렇게 또 한 번 저와 울주도서관과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서가 된 지금 저는 사무실에서 주로 도서를 분류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잘 검색하여 찾을 수 있도록 책의 서지정보를 입력하는 MARC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로서 도서관을 떠올렸을 때는 책을 대출·반납하고 공부하는 조용한 자료실의 모습만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과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과부터 여러 문화강좌를 기획하는 평생 교육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자료지원팀, 이용자들에게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운영팀, 학교나 센터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독서지원팀 등 다양한 자리의 직원들이 열심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느 곳의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직접 느끼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양이라는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울주도서관이 늘 익숙하였고 태어난 지 30년이라는 세월도 비슷하여 마치 함께 성장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글을 적다보니 도서관에서 책 읽던 아이가 세월이 흘러 이제 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울주도서관에서 좋은 사람들과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싶고, 현재의 학생분들도 울주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읽으며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튼튼하게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마당]

새야 즐거이 노래하라

이정혁(시설주무관)

도서관 건물을 점검하다 우연히 발견된 새 집 하나

씨줄날줄로 잘 엮인 새 둥지에 갓 부화한듯한 새끼 새 다섯 마리가 주둥이에 붉은 꽃송이 피어문 듯 한껏 입 벌리고 목젖까지 환하게 짹짹였다.

내 발자국 소리가 제 어미 발자국 소리인줄 알았던가 보다. 혹여나 건물관리에 장애물이 될까 치우려다 살아있는 생명이라 잠시 머뭇거렸다.

한데 이때쯤, 옥상 하늘엔 먹이를 문 어미새 안절부절 하늘을 찢으며 날고

금새라도 나를 공격이라도 할 듯 낮게 내려와 내 주위를 맴돌며 우짖었다.

한쪽 건물의 전기줄에 아빠새 망보느라 그 눈이 매섭다.

동료들과 얘기 나눈 뒤 부득이 새집을 지어 날 때까지만 보호해 주기로 했다.

나는 정성을 다해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아줄 새집을 짓고 새 둥지를 조심스럽게 새장 안으로 옮겨놓았다.

혹여나 어미새가 못 찾아 새끼새들이 굶어 죽으면 어쩌나? 관찰했다.

이런 내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다. 사람이 전혀 없고, 경계할 대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 어미새는 먹이를 물고 새장을 들락날락이기 시작했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옥상하늘을 날며 우짖기만 하던 어미새의 모성애와 함께 망을 보며 새끼새를 지키는 부성애가 나를 숙연케 했다.

그 후로는 근무 중 한 번씩 문안드리듯 새장을 살짝 들여다본다.

한 열흘 지나자 털도 보송보송한 새의 모습이 되어 한번 품어보고 싶었으나 어미새 놀랄까봐 그것만은 참기로 했다.

도서관 광장에 언제나 놀러와 노래를 불러주는 새들이 바로 너희들이었구나.

거울 속의 햇살이 쏟아지듯 푸른 나무 위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너희들이 벌써 기다려지는구나. 어미새의 모습을 보니 너무 예쁘다.

조금은 미안하지만 무슨 새인줄 아직은 모르겠다.

아기새야 부디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 노래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평화를 기도하는 새가 되어다오. 박씨 안 물어와도 좋으니 그냥 우리 친구하자.

금년 봄도 짝사랑으로 떠나는구나.

솔직히 글에 재주가 없는 나, 동료들의 성화에 용기를 내어보았다.

이름 모를 예쁜 새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직원 마당]

내가 사랑한 울주도서관

한복희(관장)

사서가 되어 설레던 첫 출근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울주도서관 30주년과 함께 나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어 기쁘다. 울주도서관과 나는 세 번의 인연이 있다. 첫 번째 인연은 1998년 6급 관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은 것이다. 발령 당시 도서관은 단 6명의 인원이었고 도서관 환경 역시 많이 열악했다.
특히 도서관 건물은 오래된 수도관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않았다. 1층 화장실만이 사용 가능했고, 그나마도 공급이 되지 않을 땐 소방급수를 이용하기도 했다. 물은 늘 우리의 걱정거리였다. 이대로는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울산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꽤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울산상수도사업본부는 저 건너 마을회관 입구부터 미나리꽝을 거쳐 강남교육청, 울주도서관까지 이어지는 크고 녹슬지 않는 수도관으로 교체공사를 해주었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던 보람찬 순간이었다.

두 번째 인연은 2008년 사무관 관장으로 울주도서관에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총 인원은 20명으로 늘었으며 더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았다. 그 당시 도서관에는 해결해야할 현안이 있었다. 개관한지 19년이 되어 건물이 낡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책을 꽂아 둘 공간이 없어 책을 서가 위나 벽면에 쌓아 두고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군청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이리저리 뛰었다. 숙고 끝에 도서관 건물의 증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울주군 추경 예산 10억을 확보하였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2009년 교육청 예산 10억을 확보하여 도서관건물을 증축할 수 있었다. 그 후 교육청과 군청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울주도서관은 전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 되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7월, 나는 3급 관장으로 울주도서관에 왔다. 이것이 바로 울주도서관과 나의 세 번째 인연이다. 이제 울주도서관은 36명의 직원으로, 교육청 소속 네 개의 도서관 중 대표 도서관이 되었다. 좋아했던 가시나무도 그대로 나를 반겨주었고 증축 후 걸었던 랑가나단 2법칙 '책은 만인의 것' 이란 입구 간판도 그대로 있었다. 지역유지나 오랜 이용자는 내가 도서관 사서로 살아온 날 만큼이나 소중한 인연들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함께 지냈던 그때 그분들, 그 시절 좋은 인연이다. 변화된 것은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만큼이나 업무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역세권의 발전으로 그 푸르던 미나리꽝은 아파트 건설로 하루가 다르게 높이를 더하고 있다. 앞으로의 확장성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울주도서관에는 책과 휴게가 있는 야외광장이 있다.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도서관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야외광장을 만들었다. 모든 직원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광장은 도서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이곳을 찾아 사색하고 쉬어가기를 바란다.
울주도서관의 발전은 함께 해준 직원들과 주위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도움 또한 컸다. 도서관 증·개축, 도서관 앞 버스 간이역과 신호등 신설을 들 수 있다. 2021년 올해도 도서관 앞 도로의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울주군 추경 예산 확보 등

도서관의 성장은 늘운영위원회와 함께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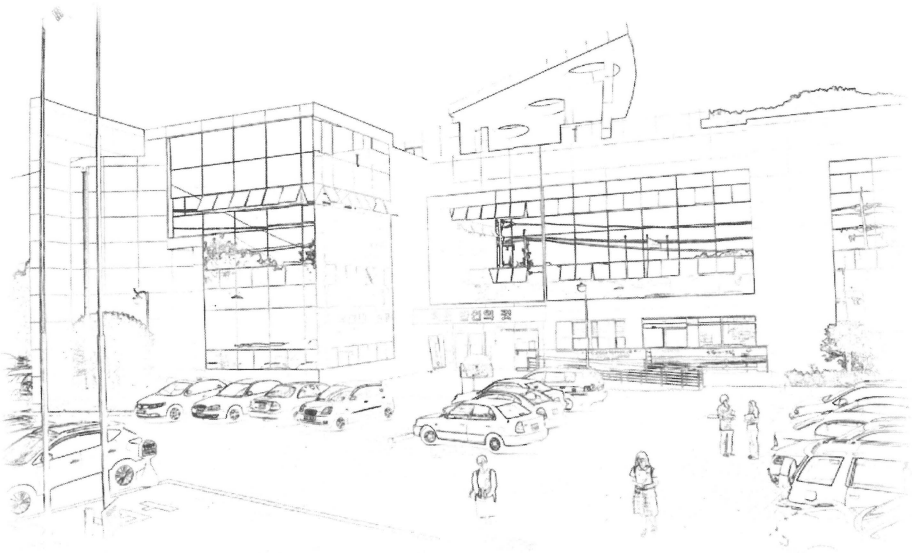
울주도서관과의 이야기를 쓰니 내 젊은 날도 떠오른다. 사서직 공채 1기였기에 창원, 김해도서관 등 신설도서관 개관업무를 하게 되었다. 선배도 없었고 자료정리부터 모든 것들을 타 시·도 선배들과 교수님들에게 묻고, 찾아가야 했다. 이리저리 자료를 찾고, 동료들과 토론도 해가며 밤늦도록 일한 그때가 새삼 그립다.

1989년 1월 울산남부도서관 개관업무로 울산에 온 지도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울산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도서관 생활이 어찌 순탄하기만 하였으랴.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떠나는 시간 또한 아쉬움이 덜하다. 랑가나단 학자를 유난히 존경했고, 그의 도서관학 5법칙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나는 대한민국의 사서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비대면 영역이 도서관에 시행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비대면 영역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여러 컨텐츠를 누릴 수 있다는 효율성이 그 이유이다. 작년 하반기 비대면 독서문화프로그램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세계문학과 철학'엔 160명이 우리 도서관 밴드에 참여하는 등 그 효과를 실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컨텐츠가 확장 또는 병행 되리라 여겨진다.

울주도서관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미래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미래공공도서관 3C '큐레이션(Curation), 커뮤니티(Community), 크리에이션(Creation)'를 충족할 공간과 사서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보의 분류, 소통, 창의로 나아가는 미래의 울주도서관을 꿈꿔 본다.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 제공



울주도서관

현황 및 소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위치한 울주도서관은 1991년 10월 11일 개관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자료 확충, 독서관련 사업 전개, 평생교육강좌 운영, 독서생활화를 위한 주제별 독서공간 제공과 21세기 공공도서관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산장비 확충사업 및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웹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하였으며, 도서자동대출·반납기, 365일 도서자동반납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하는 봉사체제 구축 및 새로운 도서관 문화 창출의 기반 마련과 학교도서관과의 연계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울주군협력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인 울주군의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균등한 도서관 이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또한 울주도서관의 특색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은 울주군 관내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도서관,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원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 단위의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의 독서생활화 기반조성과 지역간 독서격차를 해소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례 개요

울주도서관은 개관 후 19년 동안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이나 개축을 하지 못해 도서관 시설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용자들과 보유 장서수 증가로 인해 현 시설이 수용 한계에 이르러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울주도서관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우선 도서관 증축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도서관 증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한 뒤, 관련 자료를 마련하여 2008년 2월에 현안 사항인 도서관 증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도서관 증축 예산 총공사비 1,962,000,000원 중 울주군 예산 980,000,000원과 (2008년 울주군 추경예산 50%)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 982,000,000원 (2009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50%)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9년 5월 도서관증축 공사를 착공하여 만 9개월 뒤 2010년 2월 23일에 도서관을 증축 개관하였다.

도서관 증축 개관에 이어 긴급 과제인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역시교육청, 군청, 교육위원회, 군의회,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지역국회의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의 도움을 받아 기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총공사비 887 ,000,000원-교육청 예산 70%, 울주군 지원예산 30%)을 확보하여 2010년 3월에서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공사를 하여 2010년 7월 11일 드디어 전체 개관을 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공공도서관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구현으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독서문화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 확보와 더불어 조직적 · 계획적인 장서개발과 시설 확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예산 확보 및 운영은 상부기관의 재정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적인 면에서 다소 열악한 편이다. 특히 재정 및 인력, 시설이 부족한 울주도서관이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끊임없는 협의,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울주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예산 확보를 가져 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울주도서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Ⅱ. 도서관 증축 추진 현황

1. 도서관 일반 현황 및 실태

증축 전 우리도서관 건축면적이 1,075㎡(지상 3층), 직원이 15명으로 군단위의 농산어촌 도서관으로서, 연간 이용자가 406,171명(1일평균 1,430명), 연간자료 이용권수가 605,994권(1일평균 2,325권)으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도서관 행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명사 초청 '책 읽어주세요', 방학독서교실, 1일 독서교실, 도서관 현장체험, 동화구연, 독서퀴즈, 영화상영, 계층별 독서회(성인,학생,어린이), 동화 캠프, 평생교육강좌 등(34개 강좌, 9,015명 수강)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세미나실(10평)과 시청각실(31평)에서 각종 평생교육강좌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잦은 실정이다. 심지어 세미나실 하나에 이용자 식사 및 휴식공간, 평생교육공간, 독서회 및 회의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장서(144,516권)로 종합자료실(31평), 어린이자료실(21평)이 과포화 상태여서 책을 꽂을 공간이 없어 전반적인 확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총장서의 50%를 보존서고 1,2,3(창고형태-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과 기타공간)에 쌓아 놓고 있어 효율적인 자료 이용 및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도서관이 위치한 언양읍이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으로 지역 주변의 발전 가능성이 많기도 하지만, 반론의 여지도 만만치 않아 추진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도서관 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의 잦은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료이용 및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및 학생들의 독서 및 학습 향상과 지역주민의 자기계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21세기 정보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2. 도서관 증축 추진 경과

울주도서관은 1991년 개관 이후 19년 동안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이나 개축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도서관 시설의 노후화,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21세기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독서문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 이전 및 신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국비 보조의 어려움과 현 실정에서의 해결책을 무수히 강구한 결과 도서관 증축 사업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먼저 예산확보를 위하여 울주도서관 최우선 현안인 도서관 증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서관 증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한 뒤, 2008년 2월에 울주군청과 도서관 증축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 이후 울주군에서 약 10억의 예산을 2008년 추경안에 반영하게 되었다.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도서관 증축 예산의 절반(약10억)을 확보하였다. 또한 시교육청관계자들과 교육위원들을

각각 방문하고 초청하여 도서관 현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여 나머지 예산의 절반인 약 10억을 교육청으로부터 도서관 증축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본예산에 도서관 증축예산 196,200만원을 확보하였다.

2009년 5월 도서관 증축 공사를 착공하여 만 9개월 뒤 2010년 2월 13일에 도서관을 증축 개관하였다. 도서관을 증축한 후 규모는 바닥면적 756㎡ (354㎡ 증축), 연면적 2,189㎡(지상 3층 1,114㎡ 증축), 좌석 580석(322석 증가)으로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증축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영·유아자료실 및 장애인·어르신 자료실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료 이용과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였다. 증축 개관이 끝나자 긴급 과제인 기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주군청, 교육위원회, 군의회,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 887,000,000원을 확보하여 2010년 3월에서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공사를 하여 7월 11일 전체 개관을 하였다.

1) 추진 과정

▶ 2008. 02. 13. : 울주군청 방문(도서관 증축 방안 건의)
▶ 2008. 04. 15. : 울주부군수(군수 권한 대행) 도서관 방문
▶ 2008. 05. 29. : 울주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울주도서관 증축안 협의)
▶ 2008. 6월 초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 현안 사항 보고 및 건의
▶ 2008. 06. 25. : 울주군 국회의원 비서관 도서관 현장 방문
▶ 2008. 07. 09.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 도서관 현장 방문
▶ 2008. 6-12월 : 울주군 국회의원 현안 보고
▶ 2008. 08. 08. : 국회의원과 울주도서관운영위원회와의 도서관 증축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 방문
▶ 2008. 08. 26. : 울주군의회의장· 내무위원회 및 울주군정책사업과장, 교육청 관계자 현장 방문
▶ 2008. 09. 09. : 울주군의회 도서관 증축에 관한 추경예산심의 의결
▶ 2008. 09. 30. :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도서관 방문
▶ 2008. 10. 07.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도서관 현장 방문
▶ 2008. 10. 08.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 의결
▶ 2008. 10. 31.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의결
▶ 2008. 12. 29. : 울산광역시의회 예산심의 의결
▶ 2009. 1-4월 : 공사설계 및 입찰(총 공사금액 : 1,962,000,000원 -2008년 울주군 추경 예산 50%, 2009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50%)
▶ 2009. 5-12월 : 공사
▶ 2009. 12. 30. : 울주도서관 증축 건물 준공
▶ 2010. 02. 23. : 도서관 증축 개관
▶ 2010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확보 70%(621,000천원)
▶ 2010년 울주군 지원예산 확보 :전체예산의 30%(266,000천원)
▶ 2010. 3-7월 :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총 공사 금액 887,000,000원)
▶ 2010. 07. 11. : 전체 도서관 개관

2)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알리기

지역의 저명인사를 도서관의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도서관 현안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더 나아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의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본 사업에 더 한층 힘을 실어 주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독서교육 및 평생교육강좌를 통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울주군의 지리적 여건 상 각 지역 간 거리가 멀어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매 1회 1,000권 이상의 도서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독서자료 제공을 통한 지역독서지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간 지식, 정보의 습득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서아동센터 외 8곳에 16,300권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또한 2010년 전국순회사서 지원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순회사서가 작은도서관 여러 곳을 순회하며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 이모 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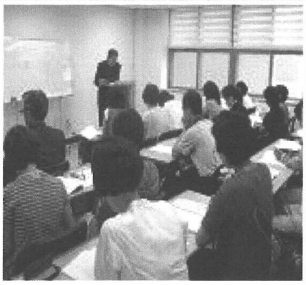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채화교실



도자기교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역원리



부모교육 특강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군자교실



애니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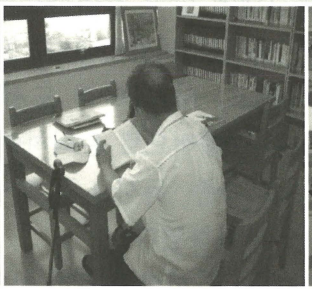
방학독서교실



영어동화야놀자

작은도서관 운영


범서지역아동센터


장애장인복지관



삼성BP화학


무지개공부방

계층별 독서회 및 독서골든벨


자운영
성인독서회


연날리기
학생독서회


작은 나라
어린이독서회



독서 골든벨

3) 증축 건물 시설

주요시설은 신설자료실로 장애인 · 어르신 자료실 및 영 · 유아자료실이 개설되었으며,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1(일반자료, 신문, 잡지), 종합자료실 2(일반자료, 향토자료, 참고자료)를 갖추고 있다. 기존에 없던 장애인 · 어르신자료실에는 점자도서, 녹음도서, 장애인 관련 신문·잡지, 일반도서 등을 소장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신설 ·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 · 유아자료실은 수유방 설치 및 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엄마와 영 · 유아들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동화구연, 빛 그림책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 · 유아기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하여 조기독서습관의 형성과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주제별 코너(Subject Corner)'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관심을 갖는 '교과연계도서' 코너는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학년별 및 과목별 교과연계도서들을 모아 두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과제 및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검색 능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낳고, 교과학습 해결을 위해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는 물론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독서생활화와 학력향상에 좋은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의 향토자료를 개발하여 '향토자료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치료 코너' 또한 호응이 높다.

도서관 증축 건물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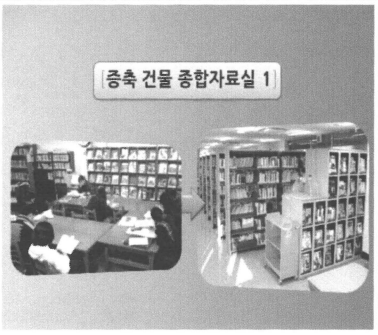
장애인 · 어르신자료실(신설)-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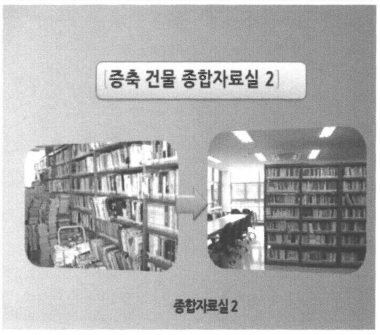
영 · 유아자료실(신설)-1층



어린이자료실-1층



종합자료실
(일반도서,신문·잡지)-2층



종합자료실(일반도서,
참고 및 향토자료)-3층

Ⅲ. 도서관 기존건물 리모델링 사업

2010년 2월 23일 도서관증축 개관에 이어 2010년 3월부터 7월말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 6억2천백만원(2010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70%), 울주군 예산 2억6천6백만원(2010년 울주군 지원예산 30%) 총사업비 8억8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건물 1,075㎡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 건물과 기존 건물 2층, 3층을 연결하는 복도를 설치하여 평생교육강좌 및 각종 독서행사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자료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 도서의 자료실 도서 인계 · 인수 및 자료실과 사무실간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 외벽 및 내부 구조, 화장실 개보수 등을 통한 쾌적한 독서공간 제공과 도서관 증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부조화를 해소하였다.

리모델링 공사 완공으로 울주도서관은 또 한 번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과정



기존 건물



증축 건물 공사 1



증축 건물 공사 2



도서관 증축 후 모습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현재모습

Ⅳ.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상부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증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도서관 증축에 대한 열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지와 지자체 및 상부기관,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도서관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도서관의 현황을 인식시켜야 한다. 지역민들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충분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리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사례를 보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홍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설득, 지역 경제단체에 대한 지원, 노력, 강화 등 다양한 재원 확보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편집후기

윤경자 정보자료 과장

도서관에서 찾은 흔적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제일 빛난다고 합니다. 도서관과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서 희망을 꿈꿔봅니다.

임미희 독서문화 과장

울주도서관 30주년 기념문집 발간은 도서관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지역민의 마음 속에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추억하는 기록 작업이 50년, 10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배경남 총무과장

오래된 울주도서관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인연들이 오고 갔습니다.
더욱 더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란 독서지원 팀장

벌써 울주도서관이 30주년을 맞이했네요. 10여년을 울주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한 저로써는 도서관이 친정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힘들면서도 보람찬 일들이 많았던 울주도서관! 항상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배근아 자료운영 팀장

축시와 축사 초대 글을 보내주신 분들과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분들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 응모해주신 분들의 좋은 원고를 읽으며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도서관 30주년 이야기 문집 발간 작업에 동참한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구현미 종합자료 실장

울주도서관 30주년... 30이라는 숫자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울주군민들께 정서적 휴식을 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근무하고 있음에 긍지를 느낍니다.

이민미 자료지원팀 사서

울주도서관 30주년 기념 문집 발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도서관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변함없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울주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도로명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09
지번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38-2
홈 페 이 지	http://www.usul.or.kr
T E L	052-255-8130
F A X	052-255-8139
버스 정보	308, 318, 323, 327, 337, 807, 1703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 국정공휴일, 기타 관장이 공고한 날 자유열람실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 국정공휴일
운 영 시 간	각 자료실: 화~일요일 09:00~18:00 / 자유열람실: 월~일요일 07:00~22:00

울주도서관 30년 이야기

발행처 : 울주도서관 독서문화과

발행일 : 2021년 6월

인쇄처 : 천령기획인쇄(052-222-1515)



울주도서관

울주도서관
30년 이야기

30